

마주하니 꽃이 피다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결과보고 및 아카이빙 북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문화디자인자리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6년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운영』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2. 28

2017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2017년 2월 인쇄

2017년 2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 획 협력개발부 양한성 부장

협력개발부 김영태 과장

협력개발부 추희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352)

전화 061-900-2100

팩스 061-900-2363

홈페이지 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주 관 기 관

문화디자인자리

책임 연구원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대표

기 획 자

강상구 문화예술협동조합 별책부록 대표

김성진 사람잇 대표

김유선 산아래문화학교 대표

김태현 안산 민예총 대표

도춘호 알로하 스튜디오 대표

민경은 여러가지연구소 대표

유다원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대표

이현경 문화디자인자리 객원기획자

연구 보조원

김미순 문화디자인자리 연구팀장

이경민 문화디자인자리 연구원

이민아 문화디자인자리 연구원



사람의 봄을 띄우는 문화다양성

2월이 되면 누구나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나지막한 중얼거림에서도,

커피 잔을 들고 의자에 몸을 엮는 우리의 마른 입가에도

마침내 발설하고 싶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한껏 품은

2월의 나무 가지 끝에 걸려 마침내 뿜어내는 것,

봄입니다.

언제나 봄은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꽂꽂 얼어붙은 일상과 관계가

향긋하게 살아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견디고 버텨야 하는 냉엄한 생존에서

이제는 활력이 모락모락 피어날 것 같은

안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도 봄을 기다립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질서와 규범으로 자리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의 문화로 자리합니다.

근대화와 경제적 성장으로 대변되는

지난 시절은 국민문화를 완성하고

오늘의 우리 사회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를 질서로 안내합니다.

시간은 오늘의 사회를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된

새로운 문화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변화는

새로운 과학적, 문화적 창조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선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욕구를 드러내고,

문화적 관계를 열망하며,

마침내 문화적 주체로 호명되는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많은 문화적 주체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지난 시절의 국민 문화가 만들어낸

획일적인 질서와는 다릅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문화다양성이 있습니다.

문화적 주체의 문화적 권리를 지지하고

문화적 주체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문화다양성은 인권과 표현의 다양성을 넘어

삶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은 근대적 질서를 해체하고

경계 간의 넘나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유방식입니다.

다양성이 관철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은

먼저 온 미래의 소식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을 뚫고 온 봄소식처럼

인간의 자유와 만남의 경계

그리고 다양한 삶의 가치를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봄의 첫 시작은 여전히 봄은 아닙니다.

봄이 봄답게 활기를 갖기 위해

봄맞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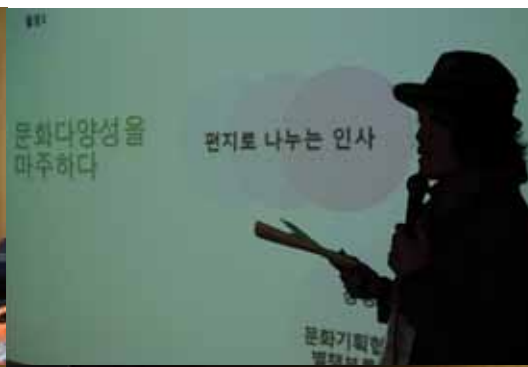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수년째 이어지는

문화다양성 연수는

그러한 준비의 장(場)입니다.







글 순서

사람의 봄을 틔우는 문화다양성 · 4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전시실 · 6

파트1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내용과 향후 방향 · 12
 현대사회와 문화다양성 · 14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기획 방향과 의미 · 19
 문화다양성 연수 활성화 방안 · 37

파트2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 문화다양성으로 한결음 · 54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현황과 내용 · 56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리뷰 · 66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 80

파트3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 문화다양성으로 마주하다 · 90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현황과 내용 · 92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참여자 리뷰 · 108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 116

파트4 시선과 생각의 표현 · 126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기획자 리뷰 : 기획자의 상상 · 128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작가 아카이빙 : 타자의 시선 · 133

파트 1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내용과 향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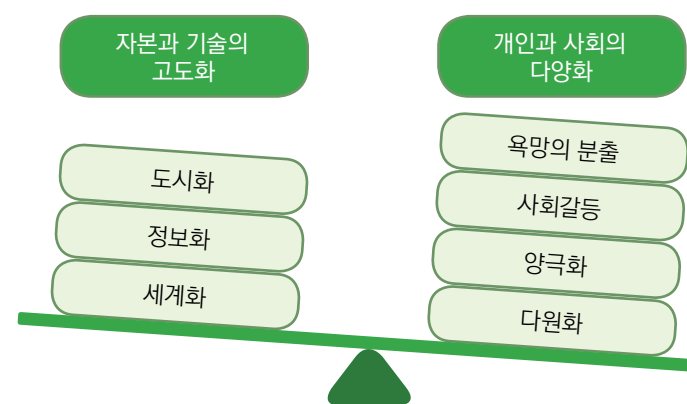
현대사회와 문화다양성

1.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현대사회

■ 현대사회의 증대되는 문화적 다양성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진단이 난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 2000년을 앞둔 밀레니엄 열풍 때입니다.
사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단 하루의 차이이며,
서기 1년이 시작된 것도 예수탄생이라는 추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맞이하는 지구별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공포나 두려움일 때도 있었고,
기대와 희망일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많이 나온 미래 사회의 추측들은
세계화, 정보화, 도시화, 상업화 등
자본과 기술의 고도화에 대한 것이 한 축을 차지하였습니다.
다른 한축은 인간과 사회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다양화, 다원화, 욕망 분출, 사회갈등 등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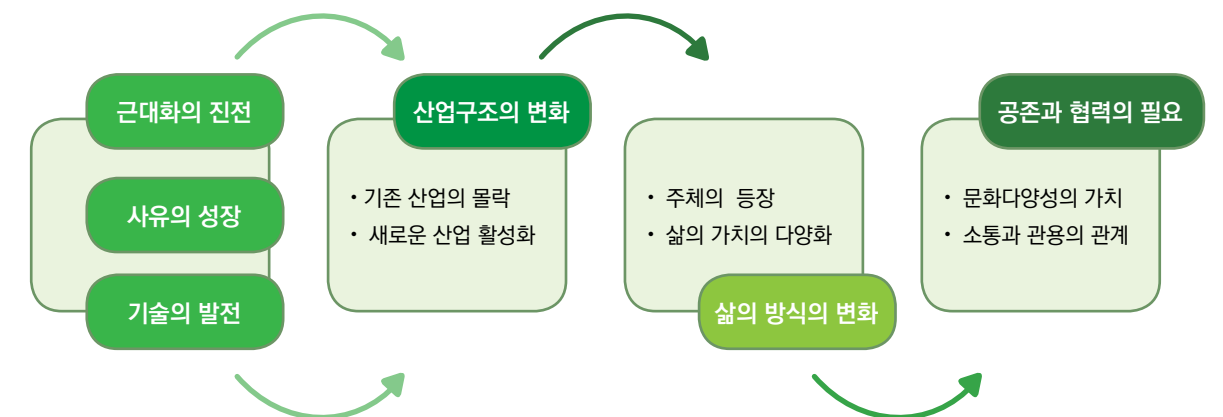


〈그림〉 현대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현상

예견은 정확히 적중했고,
현대 사회는 그러한 방향으로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눈 깜짝 할 사이에 우리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손 안에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정보가 집중되는 시대,
인간이 처할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야 할 시대입니다.
기술과 정보는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인간 사회의 가치와 신념이
이 문명을 인간사회와 지구의 생명에게
이롭게 혹은 해롭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기에는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경청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림〉 문화다양성으로의 접근

이러한 문제를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는
주체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문화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각 문화주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일정한 집단, 특별한 대상을 배제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러한 배제의 논리에는 심각한
갈등과 폭력의 논리가 탑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혹은 문화다양성

다문화적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수립하고(2005년)
사회 확산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산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하나는 다문화정책이 이주민정책과 동일시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민을 제외한 한국사회가 동일 집단처럼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이주민정책의 성격을 띤 다문화정책은
본래 취지와 상관없이 이주민을 정책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한국사회로의 “동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왔던 한국사회는
새롭게 부상된 이주민을 접하면서
마치 동일한 문화를 가진 사회인 양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정책이라는 것은
‘이주민에게 동화를, 선주민에게 단일함’을 강요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함에 관한 이슈가
오로지 “인종”의 문제로 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이슈가
처음부터 맞게 된 시련이기도 하지만,
사회 인식의 미성숙한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책적 사회적으로 오작동 된 채
안착된 개념은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이라는 보편적인 문제 제기는
다른 나라의 개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문화다양성 교육의 제기

■ 문화다양성 교육은 왜 하는가?

문화다양성 연수의 궁극적 목적은
다양한 삶으로 구성된 개별 인권의 증진,
민주적 시민성의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에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문화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을 기르는 것이 기본적인 문화역량입니다.
이는 당위성과 정의의 문제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자유를 위한 문제입니다.

유네스코 ‘21세기 교육을 위한 세계의회’가 제안한
네 가지 평등 원리인
존재에 대한 학습,
앞에 대한 학습,
실천의 학습,
함께 살아가는 학습의 핵심은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 문화다양성 교육의 근거는 무엇인가?

국내외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과 학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정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론, 동법 시행령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약, 법령 및 정책의 내용
2.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내용
3.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국제 사회의 기준도 있습니다.
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면면히 제기되어 온 내용으로,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선언」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가진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자유가 있으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개인의 문화적 권리)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3조(교육의 권리)
교육의 권리(13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적 진보 향유 권리, 자신이 저자인 과학, 문학, 예술 활동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물질적 보호 권리(15조)
「문화다양성선언」 제5조(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권리)
문화적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언어로 자신의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와 문화다양성을 존 중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
「세계문화다양성협약」 제7조 및 제8조(문화적 표현 다양성 증진 및 보호)
교육연계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보호와 증진 이해 장려, 예술가 등 인력양성 및 육성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기획 방향과 의미

1. 문화다양성 연수의 전개과정

■ 문화다양성 연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존의 다문화교육과 내용을 달리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정책적으로도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문화정책과 결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시작된 문화다양성 교육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자체가 다양한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문화다양성이 수용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사회의 문화는 어떠한지,
우리의 문화적 실천은 어떠한지
모든 것이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실험적 과정을 편성하면서,
방향과 내용을 축적해 왔습니다.

〈표〉 문화다양성 교육 전개과정		
구분	프로그램명	연수 수행기관
이전 (2008~2011년)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과정 / 다문화 전문강사 심화연수 / 문화기반시설 실무자대상 다문화교육의 이해 연수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2012년	기관단체실무자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연수 / 교원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연수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2013년	사서직 교육훈련 문화다양성 교과목 운영 / 전국도서관대회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연수	한국도서관협회
	문화의집 운영자 대상 문화다양성 연수	한국문화의집협회
	제3차 지식공유포럼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전국지역문화재단 연합회
2014년	PD, 심의위원 등 방송미디어 관계자대상 문화다양성 세미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다양성 방송언론 관계자대상 연수	(주)엔아이리서치
	초중등 교사 대상 문화다양성 연수 / 기업종사자 대상 문화다양성 연수 / 행정인력 대상 문화다양성 연수	(사)문화다움
2015년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연수	아시아인권문화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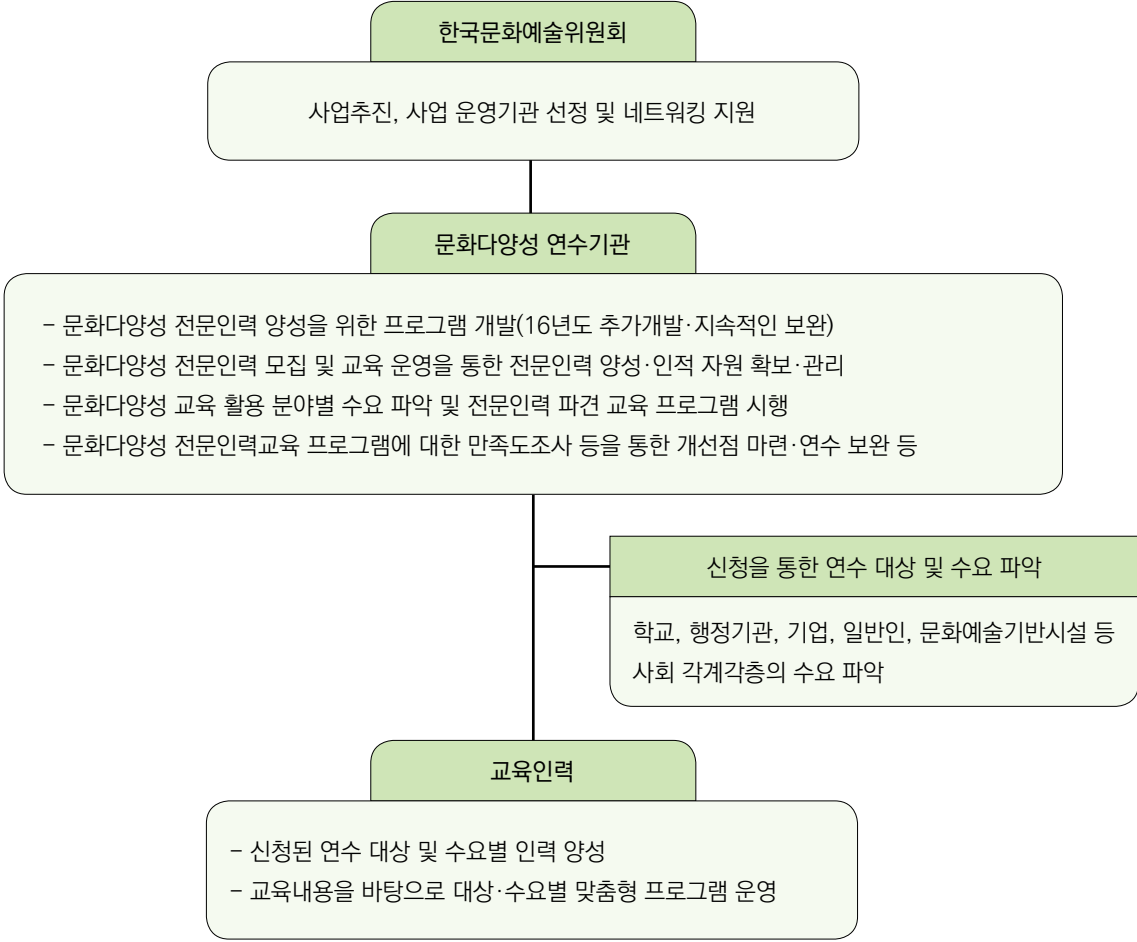
출처: ① 문화부 홈페이지(2014), 「문화다양성 교육연수 운영계획 및 현황」 pp3~4,
 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20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③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4문화예술정책백서」 p139 내용 재구성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방향

그동안 진행된 문화다양성 연수는
 획일화된 우리사회에서
 상상 가능한 다양한 문화적 시도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양성 관점의 오류와 오작동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리 사회에 걸맞은 문화다양성 관점과 방향을 탐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직은 초기적인 형태지만,
 문화다양성의 관점과 접근방식을
 실천적 경험으로 축적한 것이 그간의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2016년 문화다양성 연수는
 다음과 같은 체계와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림〉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체계와 내용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는
 이전에 개발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위한 내용을 축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요에 입각하여
 문화다양성 연수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설계와 내용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관점과 유형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는
문화다양성의 관점을
“피할 수 없는” 문화적 패러다임으로 읽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은 사회적으로 관용을,
개인적으로 삶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기본 관점

구분	내 용
관점	보편적 문화권과 문화 상대주의 ¹⁾
대상	모든 시민(국민 혹은 주민)
이슈	이주, 연령, 성(性), 종교, 성정체성, 장애, 지역 등
방법	경계 넘기, 비틀기, 해체하기, 당사자주의
효과	삶의 다양성 확보, 표현의 다양성 확대, 사회적 배려의 생활화

문화다양성은 교육이나 일상 실천 뿐 아니라,
법과 제도적 변화를 통해 접근합니다.
또한, 문화다양성은 학교, 미디어, 사회적 담론, 정책설계 등에서
국민 공감과 문화감수성의 증진을 기대합니다.

2016년 문화다양성 연수는 편의상,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유형1>,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유형2>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문화상대주의란, 타문화를 접할 때 자문화의 틀을 내려놓고 가치중립적인 자세로 해당 문화를 관찰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인류학의 방법론적 상대주의에 입각한 개념. (한경구, 2015,『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 p70)

그러나 대상화된 정책 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다양성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주민(다문화),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대상화된 정책을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유형3)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유형과 내용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구성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는
몇 가지 관점으로 충실하게 구성하였습니다.

- 인류 문화 질서를 설명하는 문화다원주의²⁾로부터 출발.
- 사회 권력 관계에 대한 성찰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지향.
- 근대적 질서의 해체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패러다임 접속.
- 주체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보편적인 민주주의 질서 이해.
- 소수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공존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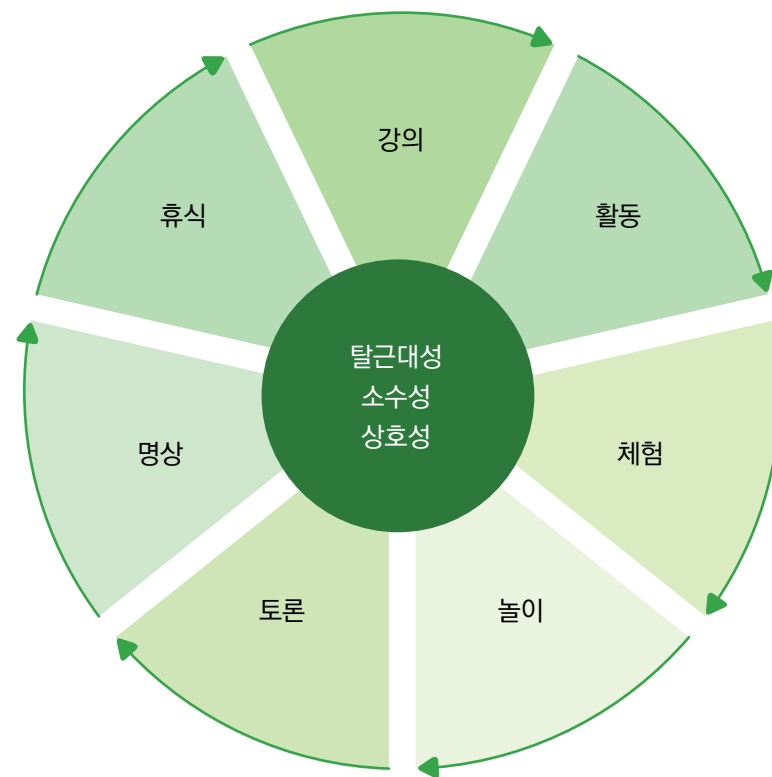
2)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제2조 문화다양성에서 문화 다원주의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정책표현이라고 볼 수 있음. (원문 : 제2조 문화다양성에서 문화 다원주의로 점점 다양해지는 우리사회에서는, 함께 살려는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집단의 조화로운 상호 작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 단결, 시민 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문화다원주의는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명백한 정책표현이다. 민주 체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교류와 공공의 삶을 지탱해주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2001. 11.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국제규범(<https://www.unesco.or.kr>))

이에 따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기반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
- 참여 기반 문화다양성 감각 활성화.
- 지역의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 확산.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연수의 방향은 보다 풍부한 다양성을 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의 방식을 엮어 구성하고 이를 상황에 따라 모듈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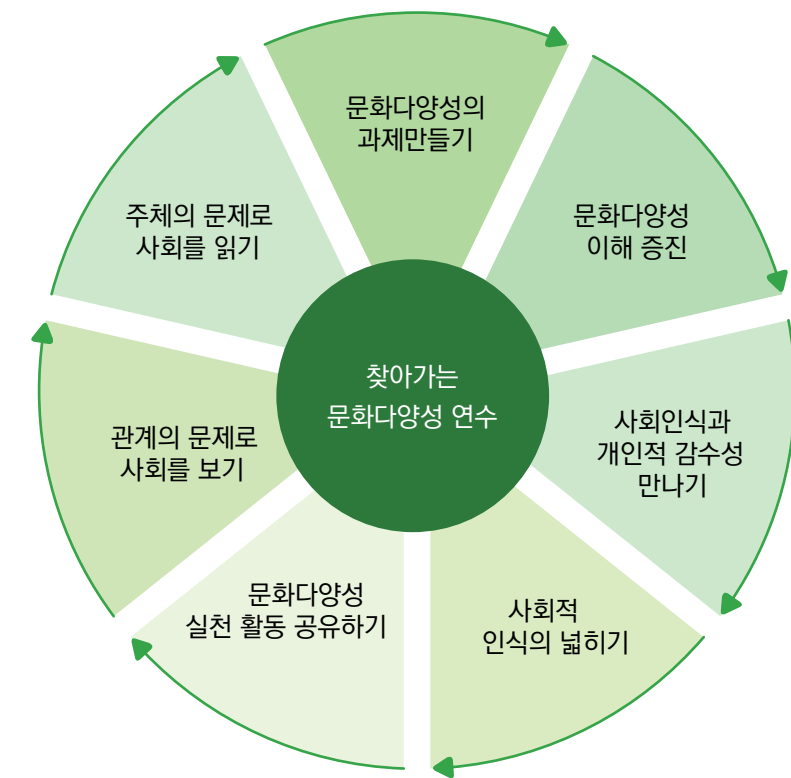
- 근대성으로부터의 유쾌한 탈주(탈근대성).
- 소수성에 대한 주제적 지지.
- 상호성에 기초한 관계 맺기.
- 모듈화 된 접근 방식.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방향과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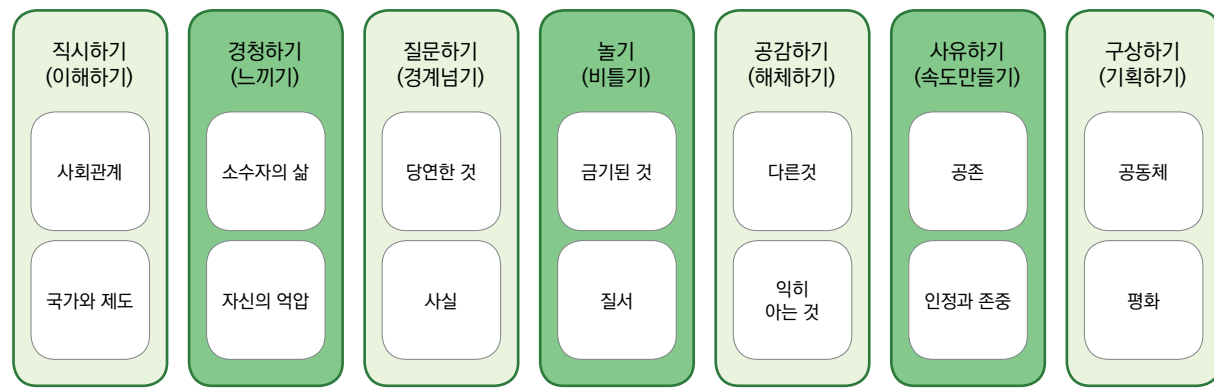
이에 따라, 프로그램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배치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실행 환경에 따라 모듈화 된 내용을 변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자기 안의 문화다양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다양성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우리 안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요소들을 찾고, 자기 삶과 일상에서 다양한 가치를 찾고 실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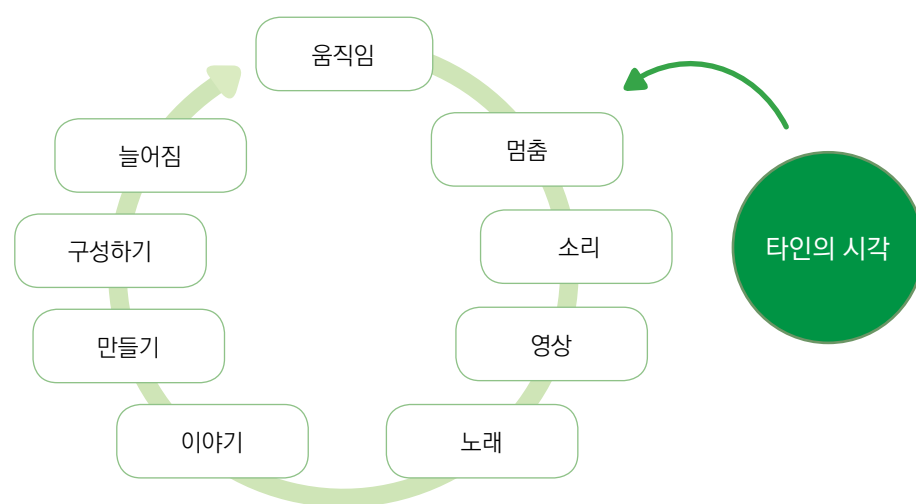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구성

위의 설계를 기준으로 활동 가능한 접근방식을 구성하고 문화다양성의 콘텐츠를 결합하였습니다. 이해하고, 느끼고, 경계를 함께 넘는 과정. 그것을 비틀어보고, 해체하고, 속도를 내어 달리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높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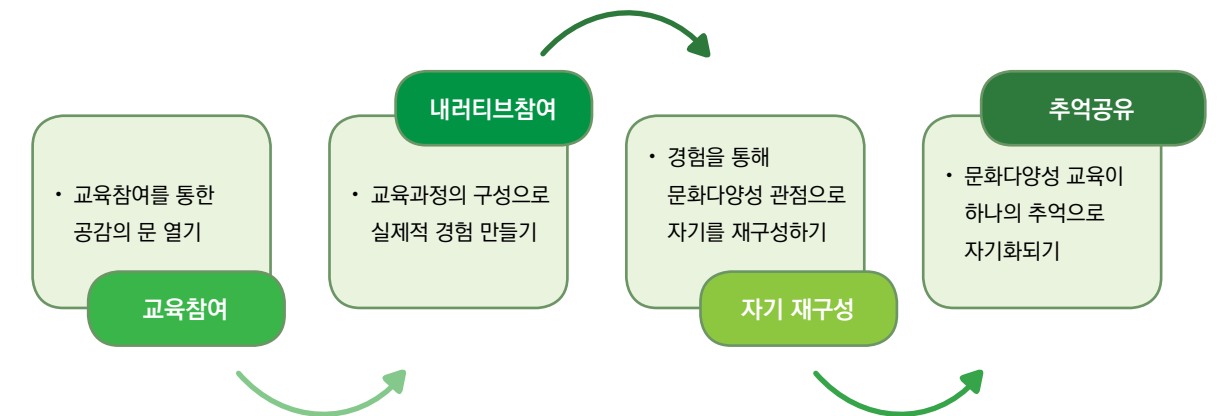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에서 참여자의 역할로 설정된 활동

표현의 해체와 경계 넘기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설계하고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접목하였습니다.
획일적이고, 당연한 방식이 아닌
공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방식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워크숍에서 해야 할 작업을 축소하고,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던 작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되도록 다듬었고
나의 시선 위에 타자의 시선을 함께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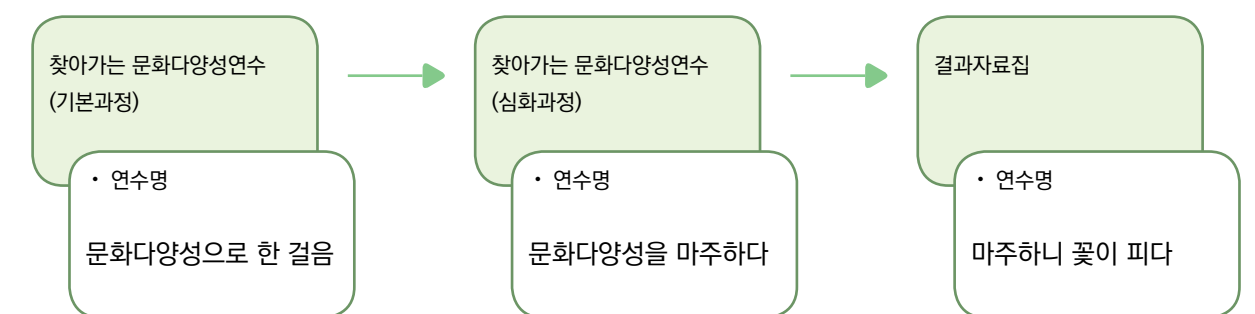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세부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활동

내러티브를 가진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으로
체감과 인식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연수과정이지만 환대와 휴식이 있어
강요되지 않음을 애써 기획했습니다.
참여자 간에 만드는 과정이 연수가 아닌
경험이며, 추억으로 기억되도록
관계 형성과 상호 학습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내러티브의 구성

이러한 내러티브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에서 다시 세분화됩니다.
또한 기본과 심화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은
역시 같은 원리와 방식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는
담당 기획자에 의해
제각각 변주되어 전체에 섞입니다.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사업 단계

(이 부분은 part2와 part3에서 다룹니다.)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참여 기획자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에 많은 기획자와 강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대표
총괄기획



김성진
사람잇 대표
전담운영



강상구
문화예술협동조합 별책부록 대표
전담운영



유다원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대표
프로그램 기획 진행



도호아
알로하 스튜디오
프로그램 기획 진행



김유선
산아래문화학교 대표
프로그램 기획 진행



이현경
문화기획자
프로그램 기획 진행



민경은
여러가지연구소 대표
프로그램 기획 진행



김태현
연극배우, 강사
프로그램 기획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강의(기본, 심화)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교수
강의(심화)



김철웅
서울교육대학교 연구교수
강의(기본)



김영현
유알아트 대표
강의(기본)



장현선
장애파트너스 대표
강의(기본)



송경희
무지개다리 컨설턴트
강의(기본)



전고필
광주 대인시장 총 감독
강의(기본)



브뤼노 파이엥
그래픽 아티스트
현장 아카이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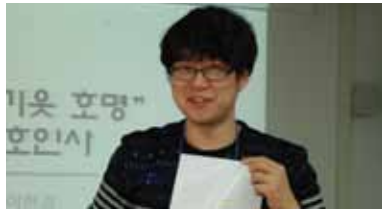
최인선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현장 아카이빙



김지윤
웹툰작가, 일러스트레이터
현장 아카이빙



김미순
문화디자인자리 연구팀장
연수 운영



이경민
문화디자인자리 연구원
연수 운영



이민아
문화디자인자리 연구원
연수 운영



이준용
다큐멘터리감독
동영상 촬영



안정혜
알로하 스튜디오
사진 촬영



이환
문화디자인자리 직원
연수 운영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홍보 및 참가자 모집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홍보와 참여자 모집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별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본과정 홍보물

현수막



배너



웹진



심화과정 홍보물

현수막



배너



웹진



참여자 모집은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를 유치한
각 지역문화재단의 협조로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은 25명을 정원으로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지역에 따라 25명 전후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모집시기	모집협력	참여기관 협력	사전신청자
2016. 12. 5 - 2017. 2.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전 신청 받음)	김해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서울성북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인제군문화재단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각 협력기관 접수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은
문화디자인자리에서 직접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회로 진행된 심화과정은 매 회당 25명을 기준으로
75명을 모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 인원이 많아
선착순 마감을 하였고 상황에 따라 25명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집시기	모집방법	사전 신청자
2017. 1. 20 - 2017. 1. 3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다양성 아카이빙 사이트 공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 협조 공문 발송 · 2015, 2016년 문화다양성 연수 참여자 대상 이메일 발송 · 문화디자인자리 웹진 홍보 · 문화디자인자리 프로그램 참여자 리스트 이메일 발송	1차 27명 2차 50명 3차 48명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경과

그래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는
해당 지역에서 찾아가서 실시한 기본과정 8회,
서울에서 집합교육으로 실시한 심화과정 3회로 진행하였습니다.
기본과정은 문화다양성의 보편적인 이해를,
심화과정은 문화다양성을 기획,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위한 심화 프로그램입니다.

구분	제목	날짜	참여자
기본과정 “문화다양성으로 한걸음”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in 익산	2016.12.12	24명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in 성북	2016.12.14	20명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in 부산	2016.12.16	25명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in 인제	2016.12.20	28명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in 청주	2016.12.22	29명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in 전남	2017.01.05	26명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in 김해	2017.01.10	33명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in 세종	2017.02.09	28명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심화과정1	2017.02.06. ~ 2017.02.07	20명
심화과정 “문화다양성을 마주하다”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심화과정2	2017.02.16. ~ 2016.02.17	30명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심화과정3	2017.02.20. ~ 2017.02.21	29명
			총 292명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설문 현황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에는
총 292명이 참석하였고,
이중 89.0%가
설문을 작성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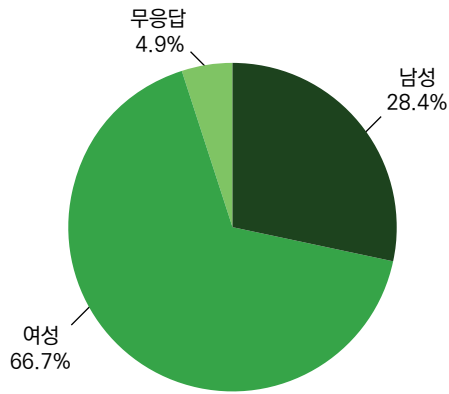
〈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참여자 설문 응답율

	연수 구분	참여자	설문응답자	설문 응답율
기본과정 “문화다양성으로 한걸음”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in 익산	24명	23명	95.8%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in 성북	20명	16명	80.0%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in 부산	25명	22명	88.0%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in 인제	28명	24명	85.7%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in 청주	29명	29명	100.0%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in 전남	26명	22명	84.6%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in 김해	33명	29명	87.9%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in 세종	28명	18명	64.3%
	소계	213명	183명	85.9%
심화과정 “문화다양성을 마주하다”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심화과정1	20명	20명	100.0%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심화과정2	30명	29명	96.7%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심화과정3	29명	28명	96.6%
	소계	79명	77명	97.5%
	총 계	292명	260명	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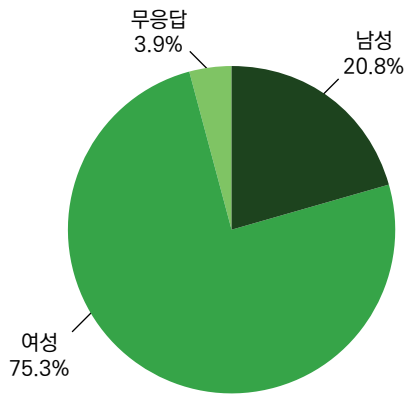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이 참여하였고,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본 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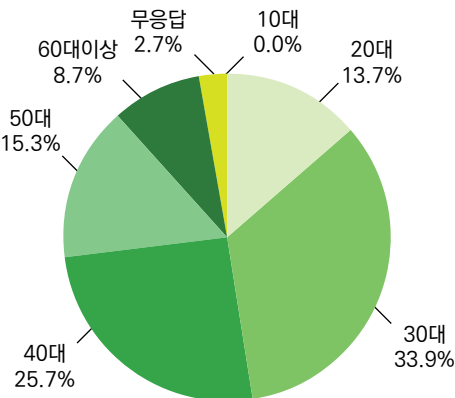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성별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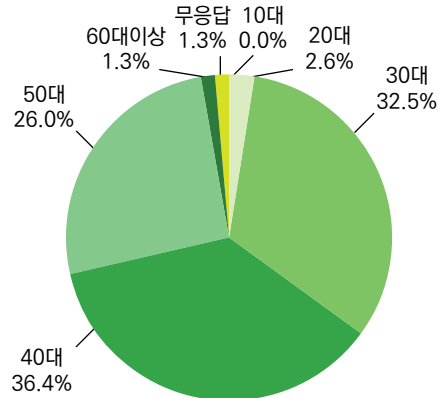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성별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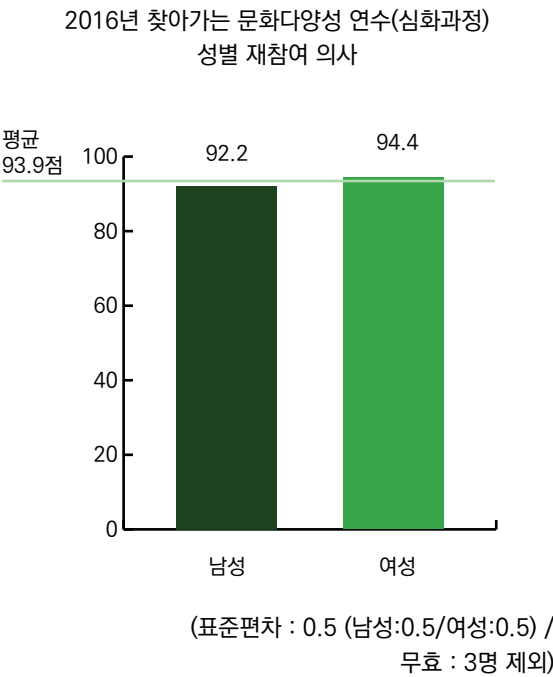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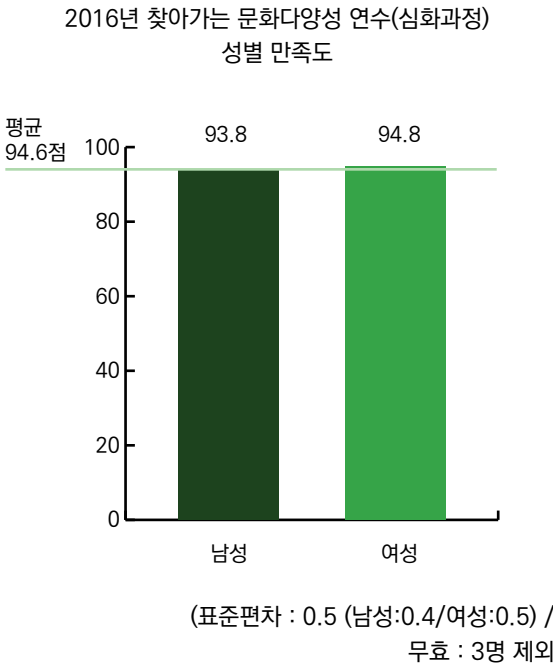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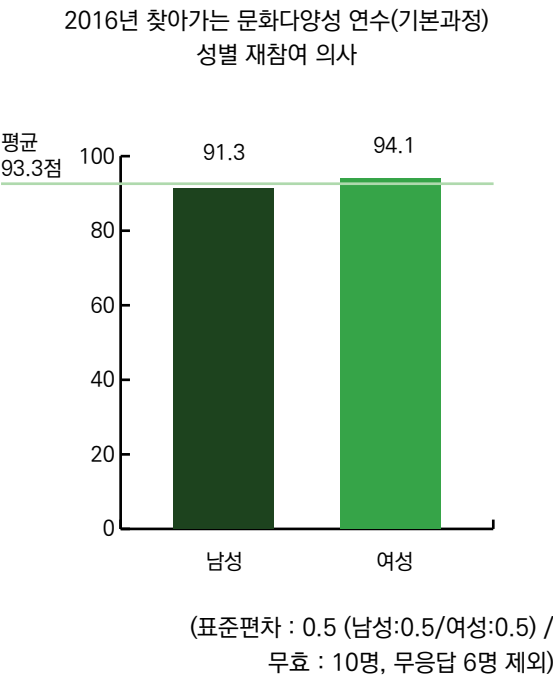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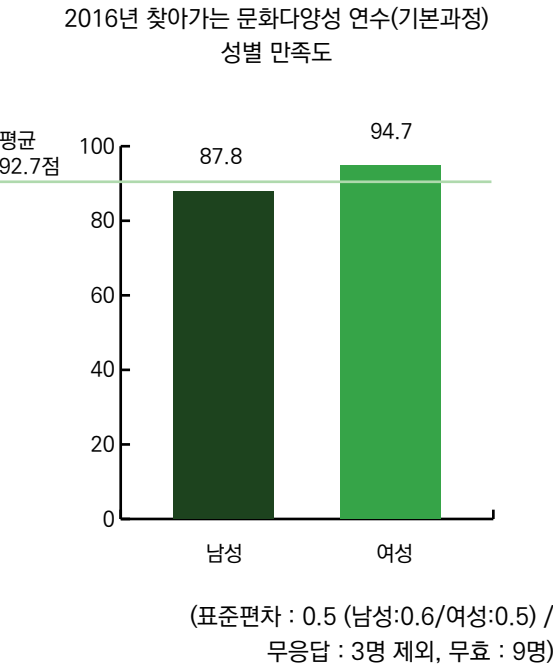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연령별 구성 비율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연령별 구성 비율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에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높은 재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문화다양성 교육의 활성화 방안

1. 2016년 문화다양성 교육의 기본 문제의식과 방향

1) 문화다양성 교육 방향과 그 시사점

■ 문화다양성 정책의 특수성

- 2012년 이래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 사업으로부터 분리된 문화다양성 영역의 정책적 포지션과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내용 및 방법을 찾는 과정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은 정책적 특성상 기존의 인식과 형식으로는 접근되기 어려운 영역이며, 그 사업의 구현 방식도 이전 정책 사업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영역임.
- 이는 본질적으로 근대적 가치를 넘어서는 영역이기 때문이며, 우리 사회의 변화 추세에 따라 그 속도와 접근 방식이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적

- 문화다양성 정책은 정책적 궤도를 찾는 과정에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다양성 담론의 형성, 사회적 수용과 변용 과정 등이 요구됨.
- 따라서 문화다양성 교육은 문화다양성 정책의 구성 내용이기도 하지만, 문화다양성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함.
- 이에 대해 2015년 연구된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이하 지침서)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적을 다섯 가지로 정의하였음.

- 첫째, 사회 내의 특정 집단이 아닌 전체 국민을 교육대상으로 하며, 그들이 문화 내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과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체득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둘째, 교육대상자가 글로벌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바람직한 시민정신과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
- 셋째, 교육대상자가 상호 존중하고 경계 간 문화를 해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문화적 공존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넷째, 교육대상자의 창의성 계발에 기여하는 것. 즉, 다양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창의성이 발휘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및 집단의 간문화적 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문화적 다양성이 창의성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 다섯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 간 대화능력을 성장시킴으로써,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자신의(즉, 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조화로운 사회적 삶과 창의적 상호 협력에 기여하는 것

출처 :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 한경구, 2015, 34쪽

- 이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로 행위를 통해 일정한 기대 목표가 있는 것으로, 이를 다시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그림〉 문화다양성 교육 목표의 해석

2) 2016년 문화다양성 교육의 문제의식

■ 2015년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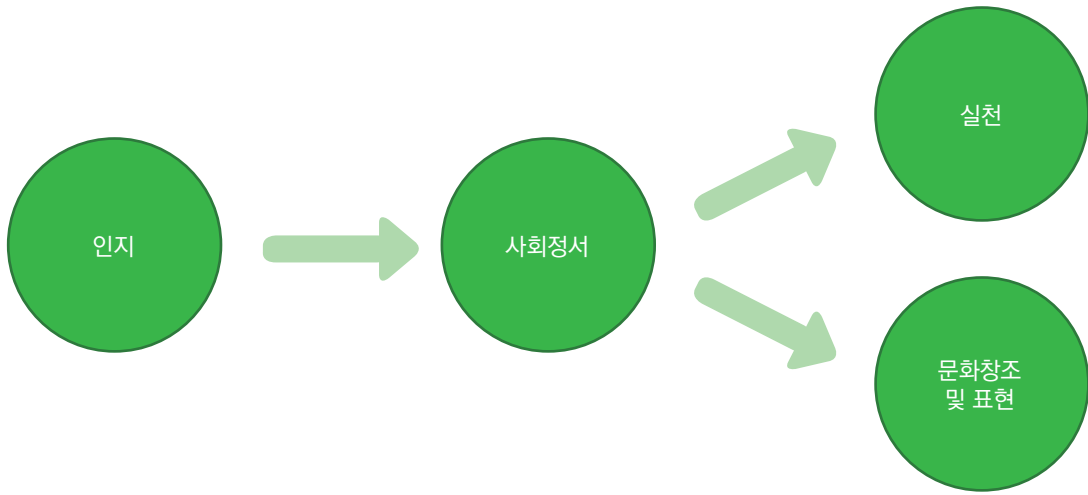
- 2016년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지침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해석하고 구체화시키는 문제는 철학과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임.
- 따라서 2014년, 2015년 실시된 문화다양성 연수의 성과와 과제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음.

〈표〉 문화다양성 연수의 성과와 과제

구분	당면목표 및 성과	과제	실행기관
2014년 문화다양성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에 관한 문제의식 확산 - 다양한 업종과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개발 - 다양성 이슈를 모듈화하여 변주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 광범위한 일반인 참여 유도과 양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의 공감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 개발 - 사회적 인식과 실천을 강화할 구체성 구현 	사) 문화다움
2015년 문화다양성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이슈를 주체의 문제와 사회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프로그램 개발 - 실천의 문제를 염두에 둔 편견을 노출하는 현실적 운영 방식 - 무지개다리사업 운영 재단 중심의 실용적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주체로서의 자기 실천의 논의 과정 필요 - 다양성 프로그램의 일반화 과정 필요 - 문화적 표현의 재구조화 과정 필요 	아시아인권 문화연대

■ 문화다양성 교육의 진행과정

- 2014년 문화다양성 연수와 2015년 문화다양성 연수는 인식과 사회화의 문제에 대해 집중한 측면이 있음.
- 이는 문화다양성 교육의 진행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기본과정에 대한 〈자기 확장〉을 통해 문화다양성 문제는 실천에 닿을 수 있으며, 마침내 새로운 문화의 주체로 〈자기 정립〉을 하는 것임.
- 이를 2015년 지침서에서는 다음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참여자들이 인지영역과 사회정서 영역을 거쳐 실천영역과 문화창조 및 표현의 영역으로 한층 심화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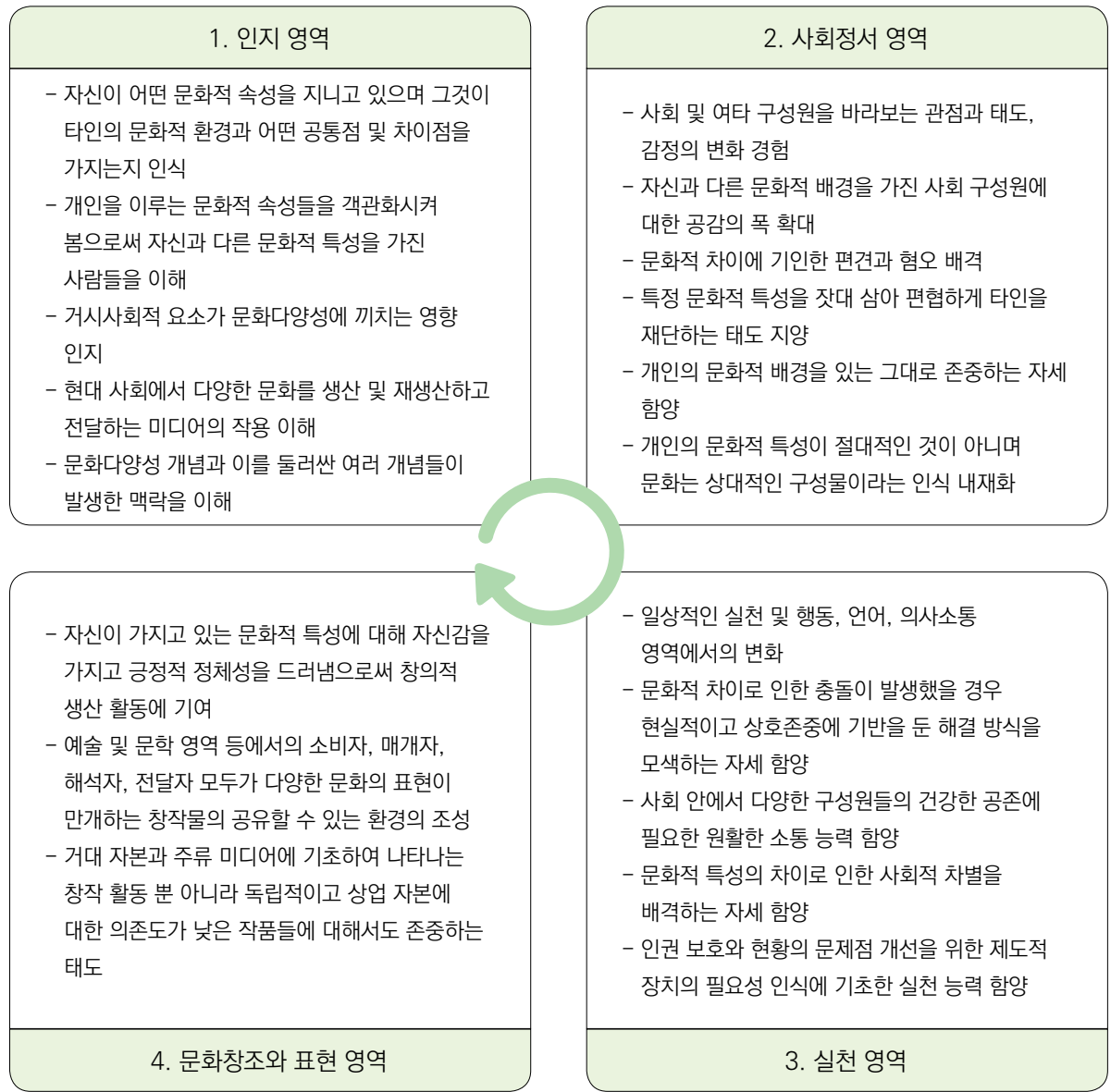
〈그림〉 문화다양성 교육 영역의 심화과정

출처 : 위의 책 24쪽

■ 문화다양성 교육 활동의 주된 동력

- 지침서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육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상을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설정하였는데, 단지 교육과 인지 능력의 향상에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 중요함.
- 이는 인지영역, 사회정서영역, 실천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할 인간의 변화를 제시하고 이러한 변화되고 성장된 인간이 새로운 문화 창조와 표현의 행위자로서 문화주체화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다양성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주체의 변화이며, 주체가 스스로 변화하는 내발성(內發性)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동력임.

〈표〉 문화다양성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출처 : 위의 책 26쪽

3)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방향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두 마리 토끼

- 2016년 문화다양성 교육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였음.
- 첫 번째 목표(외적 목표)가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이슈를 가진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저변을 확장하는 것임.
- 두 번째 목표(내적 목표)는 지침서와 2014-2015년 문화다양성 연수에서 제기된 구체화되고 실천화되는 과정을 교육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임. 즉 실천과 표현의 문제를 넘어 문화창조의 주체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임.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목표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핵심 방침

- 이러한 복잡한 목표 설정은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정책적 기대와 지역적 상황에 대단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함.
- 따라서 지침서의 원칙에 충실함과 동시에 지역적, 맥락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모듈화, 운영의 탄력성, 상황 수용성을 최대한 가동하기로 하였음.
- 프로그램의 모듈화는 전체 프로그램의 내러티브를 두고 배치한 개별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투입하는 등 변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함. 예컨대,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에서 이루어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는 토론(마주이야기)시간을 확장하기 위해 활동 프로그램을 일부 제거하여 진행함. 이는 각 개별 프로그램이 모듈화되어 있어 축소, 변주, 통합, 제거, 재구성 등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핵심 방침

- 운영의 탄력성은 운영 방식을 최대한 유연하게 하는 방침임.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를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지며, 기본과정에서도 인식 프로그램(인지 영역), 활동프로그램(사회정서 영역), 토론 및 공유 프로그램(실천 영역) 그리고 표현과 재구성 프로그램(문화창조와 표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상황에 따라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여 하루(8시간), 반나절(4시간), 2시간 프로그램으로 탄력 운영을 하였음. 따라서 세종시 문체부에서 이루어진 연수는 4시간 연수를 2시간으로 축소하기 위해 개별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였음.
- 상황 수용성은 지역 상황과 참여자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변용하는 것을 의미함. 기본과정의 운영에 있어 협력 파트너인 지역재단의 상황은 운영의 중요한 변수임. 또한 심화과정에서 기본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참여자의 참가는 매우 중요한 운영 변수임.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운영 중의 논의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내용의 수위를 조절함.

2. 참여자와 함께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1)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성과와 과제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성격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은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임.
- 어떠한 “찾아가는 프로그램(out reach program)”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안고 있음.

〈표〉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방문 프로그램의 긍정성과 부정성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방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짧은 시간에 확산하기 유리함. - 전문적인 내용을 보급하는 데 긍정적임. - 정책적 지향을 공유하는데 유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한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다양성을 훼손함 - 지역적 탐구와 고민 과정을 생략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문화요소가 유실됨.

- 그러나 이는 문화다양성 사업을 구현하고 있는 무지개다리 사업의 수행기관(문화재단)의 요구에 따라 설계된 것임.
- 실제로 문화다양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이해와 이것을 전국적인 단위에서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함.
- 따라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는 “찾아가는” 연수를 통해 관점을 “공유하고”, 전국적인 인식과 실천의 단계를 “이해하는” 자리이며, 향후의 실천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작동하였음.

■ 지역 차원의 열기에 대한 정책의 고민 필요

- 문화다양성정책은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꾸준한 변화가 조성되고 있음.
- 특히, 문체부의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체부 -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 사업운영 체계를 통해 지역 파트너(문화재단)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지역 문화재단의 활동과 문제의식은 조례제정으로 나아가고 있음.
- 문화다양성은 개인의 주체적 등장, 소수자집단의 당사자적 활동 그리고 지역문화의 자기 표현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 마땅하며, 문체부의 정책과 사업은 이러한 활동을 추동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해옴.
- 실제, 전라남도에서 2016년 11월 「전라남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여타의 지자체 조례제정 움직임을 촉발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 속에 문화다양성의 정책적 위상 구축과 주민의 인식개선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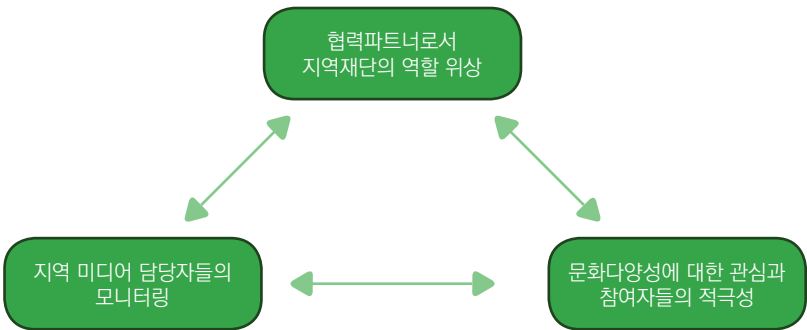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는 최초 전일 프로그램(6-8시간)으로 구성되어 각 재단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나, 지역적 상황으로 인해 반일(4시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음.
- 이 기본과정은 강의(인식 영역) - 활동(사회정서 영역) - 토론(실천)의 영역을 4시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함.

〈표〉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문화다양성으로 한 걸음” 성격

성격	배분	프로그램 이름	프로그램 목적
만남과 환대	30분	활동1 - 참여자 소개	참여자 간의 발견과 관계 맺기 과정
문화다양성 인식 정립	40분	강의 - 문화다양성 이해	현대 사회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정서 확대	40분	활동2 - 다양성 감각 증진활동	나의 편견을 꺼내보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
상호간 교류	15분	휴식	
문화다양성 실천 모색	80분	토크숍 - 문화다양성 마주이야기	문화다양성을 자기 언어로 말하고 실천을 모색하는 과정
상호간 교류	15분	휴식	
참여자간 격려	20분	활동3 - 소감나누기	설문지 응답과 함께 소감을 나누는 시간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

- 지역으로 찾아간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는 지역 문화재단의 사전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음.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효과를 높이는 구조

- 이는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효과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되었음. 지역재단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여건을 조성하고 모객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우 훌륭한 협력 파트너와 사업 환경을 조성한 것을 의미함.
- 이와 함께, 지역재단은 재단 직원은 물론 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의 지역 파트너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실질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또한 전국적으로 실행되는 문화다양성 시범학교 교사 등의 참여와 이주민 지원 활동을 하는 다문화 교사 등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음. 12월에 진행된 일부 재단을 제외하고 대개의 재단은 참여자들의 자발성이 높았음. 이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업의 활기에 의한 적극성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지역의 여론화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는 지역의 미디어 담당자를 모니터링위원으로 위촉하였음. 이들은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사화하는 것까지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함.

2)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성과와 과제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성격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은 집합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문제의식과 경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임.
- 따라서 심화과정 참여자들은 기본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가능한 것임. 그러나 실제 30%에 해당하는 심화과정 신청자들이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교육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막연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였음.
- 이들을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인 교육 기회가 없다는 항변이 있었고, 실제 지방도시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기본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참여자를 받아들임.
- 심화과정은 여전히 극복되기 어려운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문화다양성이라는 영역을 보다 심화하는 데에는 유리한 지점이 많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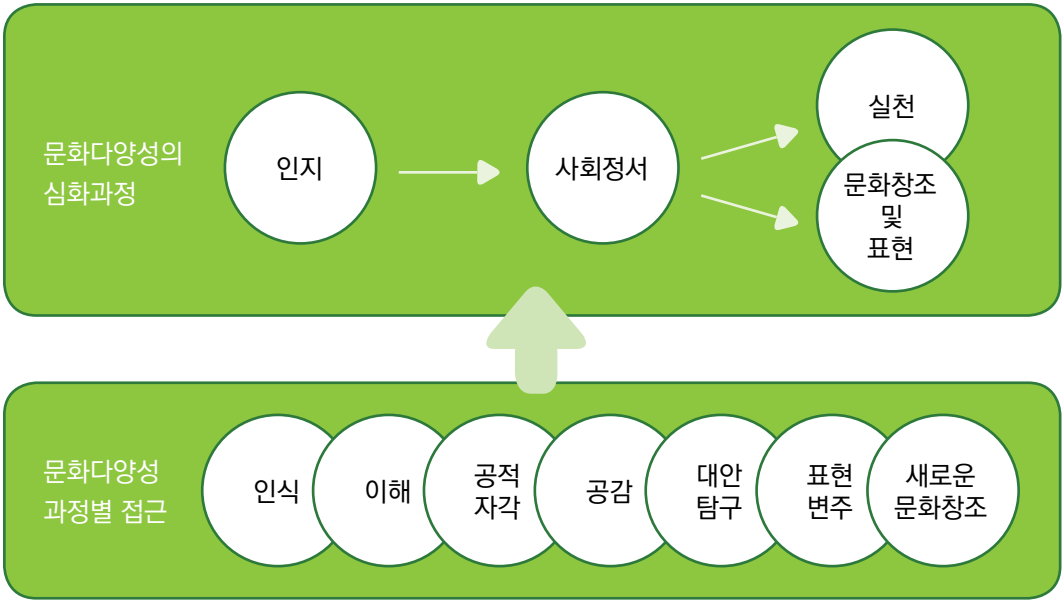
〈표〉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집합교육의 긍정성과 부정성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집합교육	- 1박2일(24시간)동안의 안정적인 참여와 운영 보장 - 참여자들 간의 상호 학습과 교류의 증대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 1박2일이지만 실제 10시간에 불과한 단기과정으로 심화 내용을 담기에 부족함 - 일상과 격리된 상황에서 일탈성 프로그램으로서 현실에 접목되지 못하는 한계. - 신청자의 상황변화에 따른 취소 등 운영의 어려움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재단, 교사, 시민활동가, 마을활동가, 문화기획자, 예술가, 문화예술교육 강사 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집합교육을 실시함.
- 이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깊은” 내용을 “고민하고” 자기 동기를 “구체화하는” 과정은 물론, 사회적 “실천”과 공동체적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아 실시됨.

■ 심화과정으로서의 고민과 방향

- 2015년 지침서를 기준으로 본다면,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 이해를 넘어 사회정서 단계를 심화하고 실천과 문화창조 및 표현이 단계에 접근되어야 함.
- 이는 단순한 인지학습 과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적 공감능력과 문화 리터러시를 기초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다양성 심화과정은 문화적 표현과 그러한 표현의 변주 그리고 자기표현의 격려 등 공감능력과 문화리터러시의 증진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



〈그림〉 문화다양성 심화 프로그램의 접근 방법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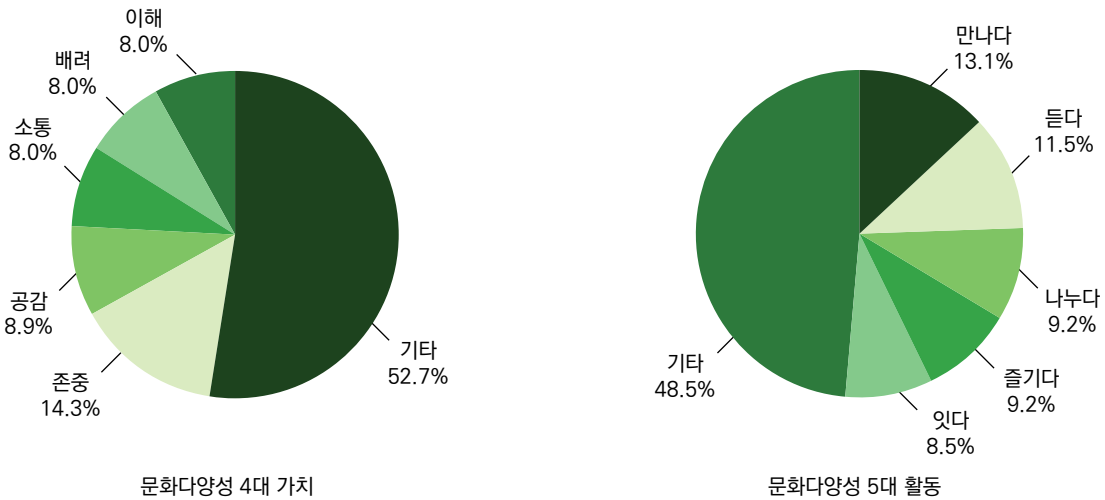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은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사전 지원 신청을 통해 모집하였음.
- 모든 프로그램은 강의와 활동 그리고 토론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다루도록 하였음.
- 특히, 전체 프로그램에 있어 인식과 실천, 활동, 토론 등의 과정에 “주어”로서 참여자가 자리할 수 있도록 주체의 참여 방식에 고심하였음.

〈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문화다양성을 마주하다” 성격

구분	주제	배분	프로그램 이름	프로그램 목적
1일	만남과 환대	50분	활동1 -품 나게 인사하기	상호 호명과 워크숍 기간동안 각자의 정서적 자리 만들기
		30분	강의1 -문화다양성으로 놀자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관점을 확인하고 가치를 논의하는 인식과정
		10분	휴식	
	현상읽기	40분	강의2 -우리사회 보편 읽기	우리 사회의 보편과 차별의 현장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
		40분	활동2 -등 뒤의 당신, 마음읽기	사회적 차별의식과 각자에게 내재화된 장치를 들여다보는 과정
		10분	휴식	
		50분	마주이야기1 -나는 어떻게 불리고 있나?	상호 토론을 통해 각자의 다양성 이해의 폭 넓히는 과정
		60분	저녁 식사	
	사회적 감수성 만들기	40분	강의3 -문화다양성 한걸음 가까이	문화다양성을 훼손하는 사회요소를 인식하고 문화다양성 실천 논의과정
		50분	마주이야기2 -문화다양성으로 안녕하기	차별적 이슈를 중심으로 문화다양성의 대안 만들기
	주체의 감수성 만들기	40분	활동3 -백일몽 : 꿈티켓 여행	나의 소수성을 이해하고 문화다양성의 주체로 의식하는 과정
			휴식 및 취침	
		60분	아침 식사	
		30분	활동4 -불러서 의미가 되다	심장을 가진 일상의 만남으로 다양성 감수성을 높이고 주체적 세계만들기
2일	실천 만들기	40분	강의4 -문화다양성의 지도 탐색하기	문화다양성 가치와 활동을 중심으로 실천방향과 지점 모색하는 과정
		20분	휴식	
		120분	마주이야기3 -문화다양성으로 당당하게	토론을 통해 개인의 삶과 활동을 재구성하는 과정
		40분	식사와 마무리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효과성을 높이고 주체의 자기 발견과 자각을 촉진하는 과정을 위해 사전 몇 가지 활동을 기획하였음.
- 우선, 문화다양성의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을 1박 2일 동안 참여자들과 함께 진행하였음. 이 과정은 일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졌음. ① 참여자 전원이 강의1 시간에 문화다양성 가치카드를 만들어 4대 가치를 만들었음. ② 강의3 시간에는 문화다양성 활동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때 5대 활동어를 추출함.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3차))에서 제시된 문화다양성 4대 가치와 5대 활동어

③ 문화다양성 4대 가치와 5대 활동을 강의4 시간에 통합적으로 접목하였는데, 이때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실천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이는 참여자와 함께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내용의 심화를 꾀하는 것임.

〈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교육(3차))에서 도출된 문화다양성 활동의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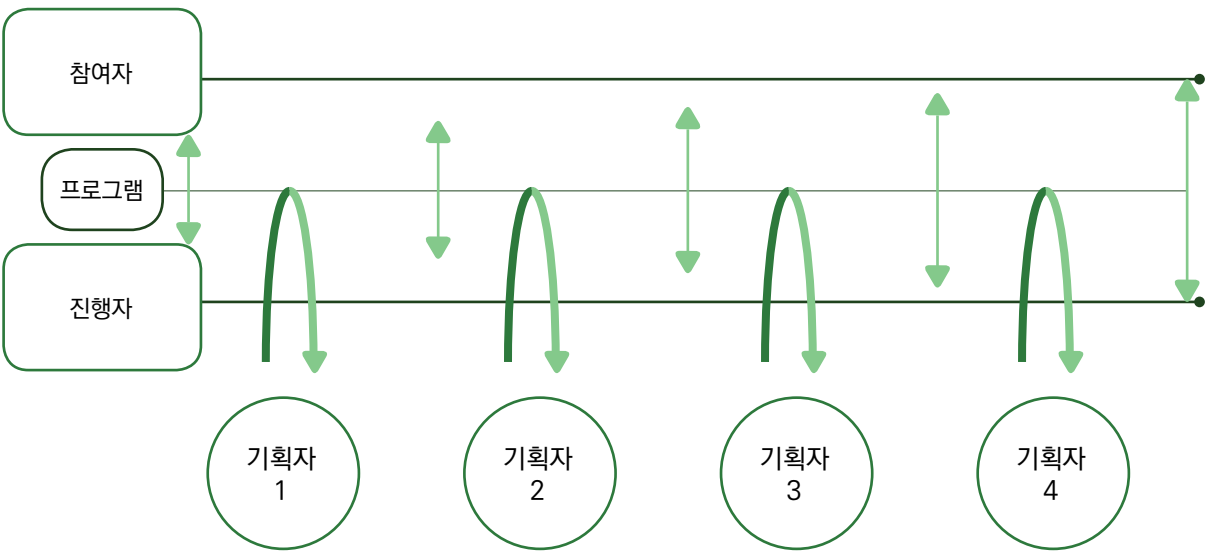
다름	만남으로 발명되는 차이	다름의 역동에 귀 기울임	차이의 가치 공유	다름의 역동을 읽는 즐거움	차이를 넘는 관계의 확장
인정	보살피는 만남	존재의 삶에 귀 기울임	존재가치의 공유	즐거움으로 확인하는 존재	공동체의 주체
공감	이야기가 있는 만남	경청으로 마음알기	속 내 깊은 배려	즐거움으로 만들어는 감수성	과정에서의 상호배움
소통	깊이있는 만남	경청함으로 느끼기	만남의 의미 공유	즐거워야 열리는 마음	만남은 다른 만남의 시작
존중	환대하는 만남	경청하는 주의깊은 태도	상호 배려의 자세	즐거움의 가치	협력의 가치
문화 다양성	만나다	듣다	나누다	즐기다	잇다

- 두 번째 심화과정의 효과성을 높이는 기획이 타인의 시선을 참여자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임. 1박 2일 동안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식의 학습을 하였음. 이 과정을 기획자나 참여자 혹은 스태프가 아닌 제3의 시선으로 1박 2일 동안 지켜보는 시선을 사전에 배치하였음. 실제 현장 참여 작업에 능숙한 예술가 3인을 사전에 섭외하고 이들의 개성에 맞게 현장과 거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표〉 프로그램 속 프로그램 “타인의 시선”

시간	주제	프로그램 이름	프로그램 목적
1박2일	타인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기	현장 그림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박 2일 동안의 공개 혹은 미공개 작가의 작업을 통해 우리를 보는 또 다른 시선을 읽음.- 이를 통해 타인의 시선으로 나(타인의 타인)을 읽는 과정이며, 예술적 창의성과 감수성으로 문화다양성을 해석하는 과정임.

- 마지막으로 심화과정의 효과성을 높이는 장치가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기획자가 배치되는 방식임. 전체 진행을 담당하는 사회자는 천천히 참여자의 시선으로 참여자와 함께 유영하듯 프로그램을 맞이하는 방법으로 참여자의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함. 그러나 다양한 이슈와 방법으로 기획된 개별 프로그램 기획자들은 제각각 색다르고 독특한 방식으로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식으로 다양성과 참신성을 유지하였음. 참여자들의 혼란을 정리하는 역할을 전체 진행자가 함으로써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였음.



〈그림〉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의 개념

3.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교육활동의 발전방안

1)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의 개선사항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문제점과 방향

① 지역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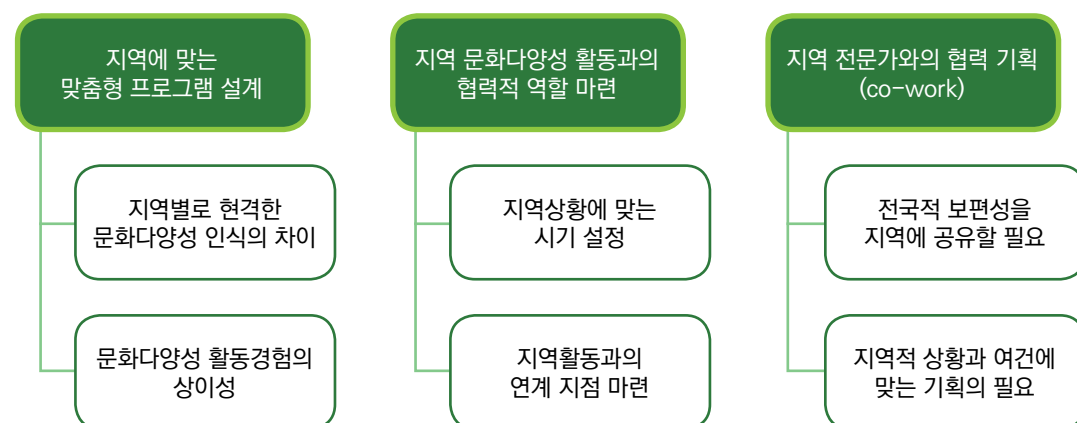
-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은 각 지역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대단히 많은 차이를 보임.
- 특히,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사업 경험이 많은 부산지역 연수(협력 : 부산문화재단)는 높은 문제의식과 경험의 확대를 위한 실천적 논의가 많은 반면, 문화다양성을 처음 접한 강원 인제지역(협력 : 인제문화재단)의 경우는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편성되었음.
- 따라서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연수의 내용을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함.

② 지역 문화다양성 활동과의 협력적 역할 마련

-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은 2016년 12월에 진행되었는데, 이는 각 지역별로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되는 시기임.
- 따라서 협력 파트너인 지역재단의 연수를 위해 홍보와 모객은 물론 당사자들도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임.
- 각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활동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시기에 맞게 “찾아가는” 연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논의가 필수적임.

③ 지역과의 협력 기획의 필요성

-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용역을 맡은 문화디자인자리에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그러나 각 지역에도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전문가가 있고, 이들과의 협력(co-work)은 상호 간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의 담론 구축에 도움이 될 것임.
- 따라서 지역과 협력 기획을 통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인적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방향

■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문제점과 방향

① 심화과정 내용의 현실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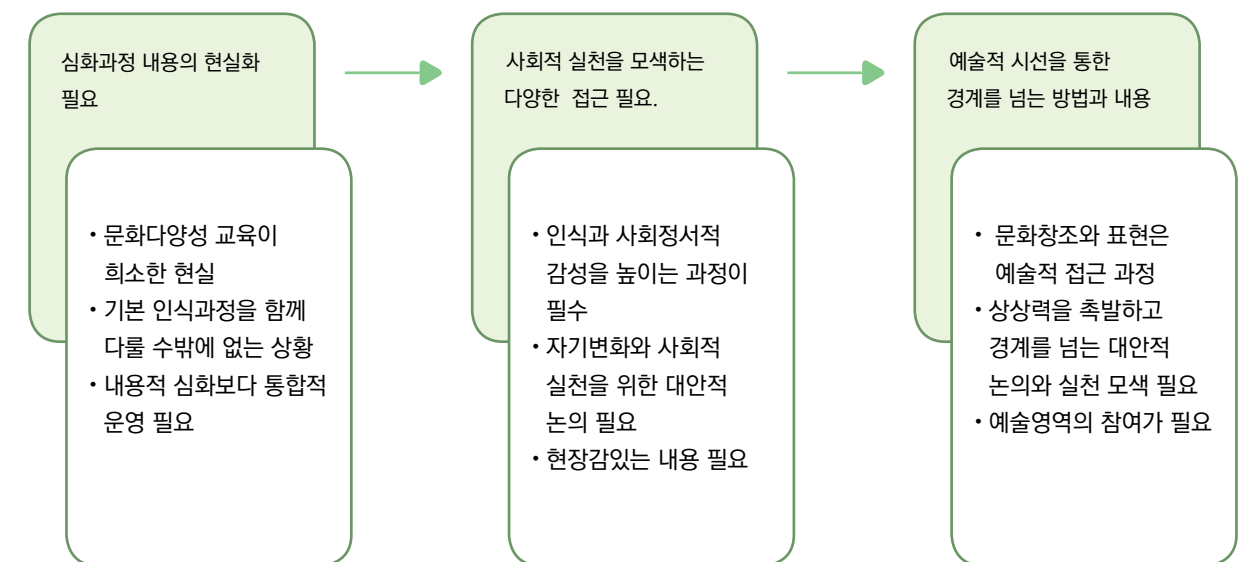
- 문화다양성은 진도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지만,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접근방식이 매우 상이함.
- 특히 근대적 교육방법에 익숙하거나, 문화다양성을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매우 어려운 자리가 아닐 수 없음.
- 그러나 문화다양성 교육을 받을 기회가 희소한 현재 상태에서 인식과 수준에 따른 구별이 어려우므로 심화과정은 내용적 심화라기보다는 통합적 심화라는 의미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사회적 실천을 모색하는 다양한 접근 필요.

- 2015년 지침서의 내용과 같이 문화다양성 교육은 인식과 사회정서를 기초로 하고 있음.
- 이는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 주체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사회(세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함. 또한 사회적으로 보면, 참여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의미함.
- 이것을 교육과정에 녹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현장감 있는 주제 발굴과 내용으로 다양한 모색을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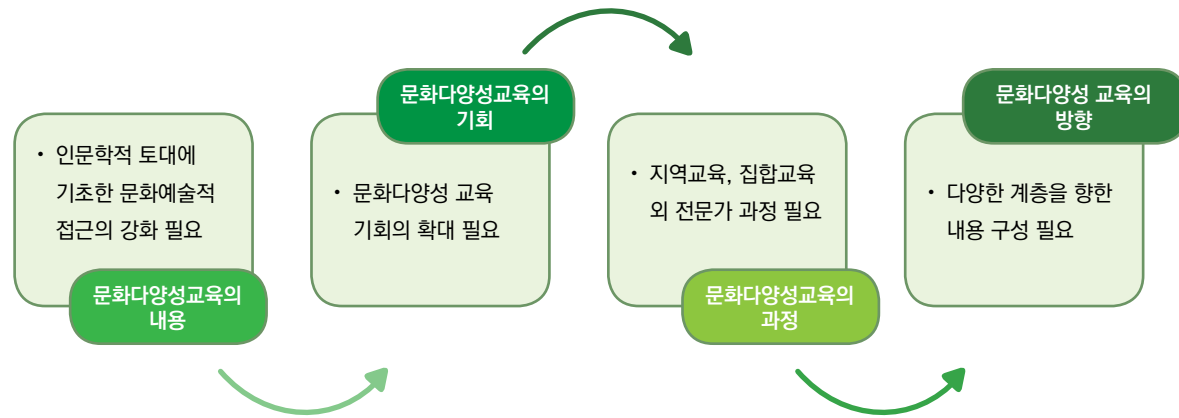
③ 예술적 시선을 통한 경계를 넘는 방법과 내용

- 문화다양성 교육은 개인과 집단을 억압하거나 차별하는 기존의 질서와 형식에 대한 질문과 새로운 대안을 찾는 과정임.
- 따라서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프로그램은 예술적 촉진과 상상력 그리고 경계를 넘는 대안 마련 등을 시도할 때 의미가 있음.
- 이는 예술교육의 철학이자 방법이며, 문화예술교육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통합할 수 있을 것임.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방향

2) 문화다양성 교육의 발전 방향



〈그림〉 문화다양성 교육의 발전 방향

■ 인문학적 토대에 기초한 문화예술적 접근의 강화 필요

- 문화다양성은 철학적, 사회적, 문화예술적으로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됨.
- 인식과 사회정서 차원에서의 논의와 달리 실천과 문화적 표현의 영역은 질서와 형식에 대한 질문과 탐구를 통해 가능함.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획과 운영에 있어 문화기획자의 참여가 요구됨.

■ 문화다양성 교육 기회의 확대 필요

- 문화다양성 사업은 무지개다리 사업과 그로 인해 파생된 지역 사업, 문화다양성 학교 지정 사업 등 이미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음.
- 그러나 문화다양성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으며, 여전히 다문화교육과의 혼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절대적인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회의 확대가 필요함.

■ 지역방문형 교육(기본과정)과 집합교육(심화과정)외 전문가 과정 필요

- 문화다양성 정책 지형이 굳건히 만들어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의 형식은 변화하는 것이 당연함.
- 때문에 지역자체교육(지역사회), 지역방문형 교육(소통형 기본과정), 심화교육(통합적 집합교육)이 제각각 자기 역할이 필요함.
- 또한 전문적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으로 자유학기제, 지역사회 시민교육 등에서 활동할 전문가들을 위한 심도 있는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양한 계층을 향한 내용 구성 필요

- 문화다양성은 관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함.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필수적인 현대 생존 교육이기도 하지만, 모든 공공기관에서 요구되는 필수과정임.
- 최근 사회분위기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변화는 사회구성원 전반이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자질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타인과 공존하고 소통하는 문화적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생존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일반 교육이 필요함.

파트 2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기본과정)
- 문화다양성으로 한 걸음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현황과 내용

따라서 각 지역에 대한 사전 진단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실제 이번 연수는 기본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본 구성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구성원의 자발성이 드러나는 활동이나 토론과정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명료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기획 내용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내용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역으로 찾아가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은
다음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무지개다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재단 및 지역에서 찾아가는 1일 문화다양성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 지역의 정서와 맥락에 기초하여 문화다양성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재단의 문화다양성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확대.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운영 방향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컨셉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맥락에 맞는 연수 운영안을 세밀화 함.
- 지역의 상황에 맞게 문화다양성 연수의 효과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 마련함.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구성과정

〈표〉 운영 대상지역의 특징

운영 대상지역	지역적 특징
서울 성북구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비교적 오랫동안 수행하고 있으며, 공유성북원탁회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모색되고 있음. 지역 내 논의를 확장하여 공론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경상남도 김해시	재단의 문화다양성 사업 의지가 높으며, 현재 이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 실천들을 통해 다양한 지역관계를 구축한 상태임. 이를 통해 다양성의 주체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전라북도 익산시	재단의 상황이 불투명하여 문화다양성 활동의 지속성이 약하나,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 기반이 있음. 이러한 지역 기반이 흠어지는 상황이므로 활동의 정립이 요구됨.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다양성 활동에 대한 열의가 높으며,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음. 현재의 활동을 성찰하고 활동의 내용과 깊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요구되고 있음.
부산광역시	이주민 중심의 활동에서 보편적 소수성에 대한 발굴과 지지를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임. 관점과 활동 동력이 잘 구축되어 있어 다양한 활동과 사례가 기대됨.
전라남도 무안군	고령화되는 지역사회에서 청년세대에 대한 이해와 세대가 소통을 통한 지역 활성화 과제에 직면함. 이를 문화다양성의 과제로 풀고자 하며, 지역적 특성이 담긴 다양성 코드를 만들고자 함.
강원도 인제군	비무장지대라는 특성상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일상성에 대한 재발견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 이해가 요구됨. 주체세력의 구성과 이를 통한 지역적 해석이 필요한 단계임.
세종시	사회, 문화 전반의 다양한 정책적 논의와 함께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점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 방안 제시가 요구됨.

이러한 준비를 통해 각 지역의 연수 일정이 결정되었으며,
각 지역의 재단의 협력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표〉 지역별 연수 일정

기관명	일정	연수 공간
익산문화재단	2016. 12. 12.(월) 14:00~18:00	익산문화재단 회의실
서울성북문화재단	2016. 12. 14(수) 14:00~18:00	아리랑시네센터 세미나실
부산문화재단	2016. 12. 16(금) 14:00~18:00	감만창의문화촌
인제군문화재단	2016. 12. 20(화) 14:00~18:00	한국시집박물관 강의실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2016. 12. 22(목) 14:00~18:00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나눔마당
전남문화관광재단	2017. 1. 5(목) 14:00~18:00	전남문화관광재단 대회의실
김해문화재단	2017. 1. 10(화) 14:00~18:00	김해문화의전당 아람배움터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2017. 2. 9(목) 15:30~17:30	세종정부청사 14~2동 중회의실

2.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운영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프로그램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의 프로그램은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연수를 제외하고 유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상황과 참여자의 욕구에 따라
지역에 따라 토론의 과정에 더 할애된 곳도 있고,
강의와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하는데 집중한 곳도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지역문화재단 임직원과 협력기관 담당자,
지역의 공무원과 문화예술인 그리고
문화다양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었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모니터링을 담당해 줄 위원을 사전 섭외하였는데,
대개 중앙지 혹은 지역 신문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지의 기획기사화를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문화다양성으로 한 걸음” 프로그램 구성

시간	배분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명
13:30 ~ 14:00	30분	참가등록	
14:00 ~ 14:30	30분	활동1 - 참여자 소개	참여자 간의 발견과 관계 맺기 과정으로 게임과 마주치기를 통해 친숙해지는 과정
14:30 ~ 15:10	40분	강의1 - 문화다양성 이해	현대 사회와 문화다양성에 대해 화두를 던지는 과정으로 전체 과정에 대한 도입부

15:10 ~ 15:50	40분	활동2 - 다양성 감각 증진활동	내 안에 있는 편견을 꺼내보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편견과 불편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과정
15:50 ~ 16:05	15분	휴식	
16:05 ~ 17:25	80분	토크숍 - 문화다양성 마주이야기	오류와 오작동이 많은 문화다양성, 단도직입으로 묻는다. 너는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 아닌가?
17:25 ~ 17:40	15분	휴식	
17:40 ~ 18:00	20분	활동3 - 소감나누기	참여자들이 설문지 응답과 함께 소감을 나누는 시간

다만 세종시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2시간으로 짧게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의와 경계 없는 문화를 토론주제로 한
이야기손님(김철웅)과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in 세종시 프로그램 구성


시간	배분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명
15:00 ~ 15:30	30분	참가등록	
15:30 ~ 16:00	30분	소개 및 인사	같은 조직에 있지만, 데면데면하기 일쑤인 일상에서 동료를 마주보고 감성을 공유하는 시간
16:00 ~ 16:40	40분	강의 - 우리사회와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관점을 소개하고 문화다양성 선언 10년을 결산 우리 사회문화다양성의 현황과 국내외 확산과정을 소개
16:40 ~ 16:50	10분	휴식	
16:50 ~ 17:30	40분	토크쇼 - 경계를 넘는 대화	소수성을 가진 당사자의 이야기로 물리적, 정서적 장벽 없는 문화(barrier free)를 꿈꾸는 시간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을 구성한 프로그램 기획서

손바닥 기획서									
구분	주제	권력억압	종교다양성	사회관념	개인관념	종합	주체	공동체	기타
	대상	일반	다인종	여성	성정체성	아동	연령	지역출신	기타
	활동	지각	촉각	시각	청각	언어	몸 전체	종합	기타
	외부 매개체	미술	음악	신체활동	종합	인지활동	실외활동	시각자료	기타
제목	상호인사								
아이디어 출처	20초 그리기의 변주(강상구)								
기획의도	참여자 간의 발견과 관계 맺기 과정으로 마주치기를 통해 친숙해지는 과정								
프로그램 내용	1. OHP 필름과 A4용지를 참여자들에게 나눠준다. 2.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짝이 되어, OHP필름을 상대의 얼굴에 대고 그려준다. 3. 한 사람이 다 그림을 그리면 바꿔서 그린다. 4. 상대가 그려준 초상화를 들고 초상화에 대한 자신의 감상과 함께 자기소개를 한다. 5. 소개를 마치고 OHP필름을 A4용지에 붙여 전시한다.								
기대효과	- 익숙하지 않은 타인의 얼굴을 따라 그리는 과정에서 낯선 시선이 익숙해지고, 짧은 시간 안에 상호 간의 교류가 이뤄질 수 있음.								
소요시간	30분								
팁	- OHP 필름을 얼굴에 가깝게 대고 그릴수록 좋음. - 사용하는 펜의 색이 진할수록 좋음. - 그릴 때 사회자는 작업 상황을 중계함으로써 활동이 공유되도록 함. - 시간이 늘어지기 쉬우므로 사회자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함.								

손바닥 기획서									
구분	주제	권력억압	종교다양성	사회관념	개인관념	종합	주체	공동체	기타
	대상	일반	다인종	여성	성정체성	아동	연령	지역출신	기타
	활동	지각	촉각	시각	청각	언어	몸 전체	종합	기타
	외부 매개체	미술	음악	신체활동	종합	인지활동	실외활동	시각자료	기타
제목		우리 사회와 문화다양성							
아이디어 출처		최혜자							
기획의도		현대 사회와 문화다양성에 대해 화두를 던지는 과정으로 전체 과정에 대한 도입부							
프로그램 내용		1. 문화다양성의 관점 살펴보기 - 한국의 문화다양성 정책 살펴보기 - 문화다양성과 다문화정책은 무엇이 다른가? 2. 문화다양성 조금만 더 가까이 - 제시된 그림을 3초 감상하고 똑같이 그려보기 - 스스로의 시선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무엇을 ‘더’ 상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 각기 다른 시선에 대해서 인지하고 고민해보기 3. 문화다양성을 찬찬히 살펴보기 - 인권선언과 문화다양성의 배경과 내용 - 문화다양성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 살펴보기 - 일상/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 문화다양성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과 고민들의 제언(예, 낯설게 보기, 불가근불가원의 원칙)							
기대효과		-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실천의 영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돋움의 시간이 됨.							
소요시간		40분							
팁		- 강의 중간에 참여자 활동을 배치하여 발언이 쌍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손바닥 기획서									
구분	주제	권력억압	종교다양성	사회관념	개인관념	종합	주체	공동체	기타
	대상	일반	다인종	여성	성정체성	아동	연령	지역출신	기타
	활동	지각	촉각	시각	청각	언어	몸 전체	종합	기타
	외부 매개체	미술	음악	신체활동	종합	인지활동	실외활동	시각자료	기타
제목		누구와 함께 살 건							
아이디어 출처		마을만들기							
기획의도		불만과 편견을 소재로 마을에 새로운 상상력을 사람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기							
프로그램 내용		1. 누구와 함께 살건의 프로그램 소개와 행동지침을 소개한다. 2. 24명의 사람 중 함께 살고 싶은 사람 2명과 같이 살기 꺼려지는 사람을 각각 2명씩 고른다. 3.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적으로 함께 살고 싶은 사람 2명과 같이 살기 꺼려지는 사람 2명을 고른다. 4. 8절지(색지)에 골목길을 그린다. 5. 길을 중심으로 이웃들의 집을 그린다 : 따로 혹은 같이 6. 골목을 중심으로 동네에 필요한 것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7. 같이 사는 사람들로 누구를 선택했는지, 왜 선택했고 어떻게 골목을 디자인하였는지 공유한다.							
기대효과		- 상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스스로 또는 사회적인 인식 및 편견에 대해 확인해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내에서의 다양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봄. - 멀리 있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닌 같이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이웃으로 의식하며 느끼는 인식의 변화를 느껴봄.							
소요시간		40분							
팁		- 음악이 잔잔히 나와서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은 풀어줄 수 있게 함. - 시간이 늘어지기 쉬우므로 사회자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 골목을 만들 때 같이 사용하는 공동의 공간을 만들어 둬م.							

<div>  <div>손바닥 기획서</div> </div>									
구분	주제	권력억압	종교다양성	사회관념	개인관념	종합	주제	공동체	기타
	대상	일반	다인종	여성	성정체성	아동	연령	지역출신	기타
	활동	지각	촉각	시각	청각	언어	몸 전체	종합	기타
	외부 매개체	미술	음악	신체활동	종합	인지활동	실외활동	시각자료	기타
제목	Egg머니나~!								
아이디어 출처	민경은								
기획의도	내 안에 있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꺼내보고, 이를 지키는 노력과 함께 중요성을 재발견하는 과정								
프로그램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여자에게 각각 1개의 계란과 두꺼운 도화지, 테이프를 나눠준다. 2. 5-6명이 한 조가 되어, 계란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혹은 자신이 가진 장점을 적는다. 3. 다 적은 후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공유한다. 4. 두꺼운 도화지, 테이프를 계란깨짐방지 장치를 만든다. 5.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계란을 세 개 고른다. 6. 완충제 위로 계란을 떨어뜨리고 깨지지 않으면 다음 높이로 넘어간다. 7. 모두 마친 후에는 참여하며 들었던 소감을 나눠본다. 8. 소감을 모두 나눈 후 사이다를 마시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의 중요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공유함. - 함께 공유하고 떨어뜨릴 계란을 고르며, 자신에게 주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재확인해봄. 								
소요시간	50분								
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간 배치함. - 높이를 재기 위한 키재기판(예, 기린키높이판)은 테이프로 대체 가능함. 								

<div>  <div>손바닥 기획서</div> </div>									
구분	주제	권력억압	종교다양성	사회관념	개인관념	종합	주제	공동체	기타
	대상	일반	다인종	여성	성정체성	아동	연령	지역출신	기타
	활동	지각	촉각	시각	청각	언어	몸 전체	종합	기타
	외부 매개체	미술	음악	신체활동	종합	인지활동	실외활동	시각자료	기타
제목	토크숍 - 마주이야기								
아이디어 출처	최혜자								
기획의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질문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수 있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프로그램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여자들이 질문을 적을 수 있는 카드를 나눠준다. 2.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질문지를 설치된 질문지 끈에 매달아둔다. 3. 마주이야기의 초대게스트를 소개한다. 4. 게스트는 가발, 머리띠, 콧수염 등 다양한 소품으로 분장을 한다. 5. 사회자가 질문지 중 하나를 골라 전문가에게 건내고, 게스트 혹은 참여자와 함께 토크숍을 진행한다. 								
기대효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고, 일상의 고민과 연결지음으로서,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								
소요시간	40분								
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발, 콧수염 등 소품을 참여자가 전문가에게 직접 씌워주거나 붙여주는 것이 더 좋음. - 소품은 장난스러울 수록 좋음. - 문화다양성에 대해 질문하되 너무 무겁지 않게 진행함.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기본과정)의 리뷰³⁾

익산으로부터 온 편지

12월 12일 익산문화재단에서 열린 연수는 ‘문화다양성으로 한 걸음’이라는 올해의 주제답게 문화다양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익산 지역의 활동가와 시민의 인식을 일깨워주는 시간으로 작용했다.

첫 대면 후, 참여자들끼리의 어색함이 흐르는 시간도 잠시뿐. 지난 일 년 동안 ‘문화다양성’이라는 주제 아래 매일 고민하고 끈질기게 토론했던 활동가와 시민들이 모였기 때문인지 몰라도 초반부터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들은 다양성감각 증진 활동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편견을 꺼내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내 안의 나를 꺼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미 ‘문화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인지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편견이라는 단어에서 자유롭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조차도 여러 사례들을 통해 편견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소소하지만 깊이 있는 활동을 통해 편견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상호적인 작용이 중요한 작업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또 문화다양성에 대해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생각의 파이를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기 자신조차도 한 줄로 설명이 불가능할진데, 사람들이 지닌 각각의 성격과 고유한 무엇, 상대방의 배경과 문화를 먼저 알아가는 자세 등이 문화다양성의 상호작용을 키워가는 중요한 씨앗이 됨을 되새기는 모습이었다.

황정금 익산장애인가족인권센터 센터장은 “문화다양성이란 단어를 익산문화재단에서 처음 접하게 됐다”면서 “문화다양성사업에 참여할수록 내안의 고정관념과 싸우게 되고 한계를 느낄 때가 많으며, 혼자만의 벽도 생기고, 먼저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김진아 익산문화재단 문화정책팀장은 “현장에 있다 보면 사업의 의미나 취지는 좋지만, 실행에 있어서 규제도 많아 부딪히기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문화다양성 사업을 실행하는 사람들조차 이론적으로는 열려있지만, 억지로 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최혜자 대표는 “모든 문화는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는 우월함과 열등함이 없다”면서 “문화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상과 사회, 문화적인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야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다양함은 판단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북도민일보 문화교육부 김미진 기자



3) 찾아가는 문화다양성(기본과정)은 지역의 기자에게 모니터를 의뢰하였습니다. 글쓰이의 의도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중복된 내용은 약간의 편집을 하였습니다.

서울 성북구로부터 온 편지

1. 성북구의 문화다양성

서울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경제적 기준으로는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평균적인 성격을 지닌 지역입니다. 문화다양성 수용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구로구나 금천구 지역에 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적지만, KIST와 고려대 같은 연구시설이 있어 지적 수준이 높은 외국 인력이 꽤 거주하는 편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8개의 대학교가 있어 젊은 층이 많다보니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이 활발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북구 인구의 평균 나이대는 서울시의 평균인 40대로 40만 여명의 전체 인구 가운데 100세 이상 노령인구도 300명에 가까울 정도로 비교적 문화다양성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노인층의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또 성북구를 대표하는 성북동은 역사문화지구로 선정되어 한양도성 복원, 옛돌박물관, 가구박물관, 실크박물관 등이 위치하는 등 한국 전통문화의 멋과 향기가 살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 특성을 따져보았을 때 성북구는 문화다양성이 살아 숨쉬기에 적합한 곳이라 할 것입니다. (중략)

2. 문화다양성 연수에 대한 의견

여러 연수프로그램은 대부분 강연 중심에 참가자들의 체험 프로그램이 조금 추가되는 등 비슷한 성격으로 구성됩니다. 연수 프로그램에서 강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소개하고 지향점을 알리는 가이드 역할을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큰 성과를 얻는 부분은 다른 참가자들과의 소통에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서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참가자들이 의견과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경험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다양성 연수도 참가자들이 다양한 소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가자들끼리 모임을 구성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모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문화다양성으로 한걸음” 프로그램은 기웃기웃 호명, 마주이야기, 내 안의 편견을 꺼내는 ‘소풍’ 등의 참여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확장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참가자들이 의견과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경험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다양성 연수도 참가자들이 다양한 소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후략)

서울신문 윤창수 기자



부산으로부터 온 편지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뿐 아니라
노인,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정책을
모두 포괄한 것입니다.
문화다양성 역시
이 모든 영역을 포괄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디자인 자리가 진행을 맡은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가
16일 오후 2~6시 부산문화재단에서 열렸다.

‘문화다양성으로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5년째로,
문화다양성에 관심 있는 각 지역 활동가와
시민들을 찾아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개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참여자들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OHP필름(투명필름지)을 얼굴에 대고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뒤이은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의
‘현대사회와 다양성 강의’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오해 등을
풀 수 있는 자리였다.
최 대표는
“서로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사회를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게
문화다양성의 핵심”이라며
“문화다양성 정책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상사회 등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두기, 낯설게 보기,
비틀어 생각해보기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마련된
‘문화다양성 마주 이야기’라는 주제의
토크쇼, 소감 나누기 등은
참여자 모두가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반응이 특히 좋았다.

박소윤 부산문화재단 문화복지팀장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 이해에 충실한
강의인데다 대화 형태의 쌍방향식으로 진행돼
연수에 참여한 재단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SNS를 통해 프로그램을 알게 돼 참여했다는
원영란(57)씨 역시
“문화다양성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윤여진 기자



강원도 인제로부터 온 편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주최하고 문화디자인 자리(대표 최혜자)가 운영하는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가 지난 12월 20일 한국시집박물관에서 "문화다양성으로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는 각 지역의 문화다양성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활동가,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진행하는 문화다양성 인식 프로그램이다.

(중략)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문화다양성 감각 증진활동, 문화다양성 토크숍, 소감나누기 등 4시간에 걸친 연수를 통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확대를 도모하였다. 연수에 참가한 권순덕 인제군 시낭송아카데미 회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연수를 통하여 문화다양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회원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문화다양성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인제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지개다리 원탁회의>에 참여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고 싶다고 했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현 정부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적, 인종, 성별, 세대 간 문화 차이를 넘어 다양한 문화 주체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서로 간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화합과 진보를 창출하는 지역 공동체적 문화 활동을 위한 사업이다.

인제군문화재단은 '나와 너의 경계를 넘어, 문화로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의 문화 소통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목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활문화 예술에 대한 열린 시각과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풀뿌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본 사업을 기획했다.

인제군문화재단 손흥기 팀장은 '2017년도 2년차 사업에는 민통선 인접한 군사지역으로 약 2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인제군 관내 주둔 군장병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사업을 활발히 전개 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인제신문사 대표 김좌훈



청주로부터 온 편지

문화다양성, 가깝고도 먼 당신

낯설다. 어색하다. 불편하다....

‘다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은 머리로 이해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우선 ‘문화다양성’이라는 단어부터 낯설다.

나는 제일 먼저 ‘다문화’를 떠올렸고 ‘외국인’을 머릿속에 그렸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등 얼굴색과 언어가 다른 외국인들과 연관지어 생각한 것부터 편견의 시작이었다.

내가 마주한 ‘문화다양성’은 멀리 있지 않았다.

너무 가까이 존재했다. 문화다양성은 여성과 남성,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등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주변인들로부터 시작됐다.

(중략)

대부분 사람들이 문화다양성을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무관심’으로 포장한 채 살아간다. 막상 소수성을 가진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무관심이 이기주의로 변하고 상황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 시간은 참가자들이 함께 소감을 나누는 시간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가감 없이 내놓았다.

‘모두 다양하다고 좋은 것인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는 순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이해한다는 것이 무관심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는 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힘이 드는 참가자들은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문화다양성 매개자 육성과 참가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 문화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을 제안하는 걸까’ 등 참가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만든 토론장은 반응이 뜨거웠다.

현재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사업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은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라운드테이블, 다가치 토크콘서트, 소수자-다수자 교류프로그램 ‘도란도란 다락방’, 지역축제장 문화다양성 캠페인, 리본프로젝트 등 문화와 접목한 사업들을 시도했고 성과를 거뒀다.

우리들에게는 명명되지 않은 소수성이 아직도 사회에 많다. 똑같은 한국인일지라도 지문, 목소리, 생각 다 다른 제각각인데. 남들의 시선에 얽매어 살다보니 나만의 생각은

실종되고, 나와 다른 생각은 ‘틀리다’고 명명했다.

‘틀리다: 썸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다르다: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는 의미를 ‘틀리다’로 표현한다. 그건 은연중에 나와 다른 건 틀린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일지 모른다. 우리가 그른 것,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대체로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 생소한 것일 뿐이다.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짧은 시간에 나의 모든 편견과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다른 생각 다른 행동에 한걸음 내딛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 지붕 아래 있는 문화다양성을 실천하는 방법은 문화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즐기는 것이라고 한다.

아직은 편견을 깨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불편하지만 문화다양성 이해를 통해 ‘다름’을 인정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다름의 차이를 즐길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충청매일 김민정 기자



전남으로부터 온 편지

‘문화다양성 한걸음.’ 주제부터가 맘에 든다.
1월 6일 전남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문화디자인 자리’의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이야기다.

4시간가량 진행된 연수는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특히 문화디자인자리 최혜자 대표의 ‘문화다양성
이해’ 주제 강연에서는 우리 사회에 흔하지만 쉽게
느끼지 못했던 문화 다양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다.
‘서로에 대한 차이성에 대해 지지하고, 응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 결국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기본자세라는 것을
생각하는 계기였다.

두 번째 활동으로 이어졌던 ‘내안의 다양성을 찾는
시간’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됐다.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마을을 스스로가 디자인해보는 시간이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 스스로가 다양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참여자들의 반응은 좋았다. 정보석 씨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지역, 더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가 찾지 않은 곳으로 왔으면 좋겠다.
도시에 집중 편향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다.

박유일 씨는 “잘 몰랐다. 다양한 시각 확장된
시간이었다.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아 좋다.
다양성하면 늘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만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김수재 씨는 “반성을 했다. 일반인 위주의 사업을
했다는 데 대한 반성이다.
소수자가 많다. 왼손잡이를 위한 사업은 없었다.
그저 평범한 사업 위주로 구상하는 편협한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다. 일상적이지 않고
정책적이나 권력적 사업이 아닌 다양성을 고려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다짐했다.

서우찬 씨는 “다양성이라는 용어자체가
사라지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에 대한 배려심이 커진다면 더 이상
다양성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도 느끼는
계기였다”고 했다.

4시간가량 진행된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말 그대로 참가자들이 문화다양성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로
한 걸음 다가서는 연수의 자리였다.

전남일보 홍성장 문화체육부 차장



김해로부터 온 편지

지난 1월 10일 오후 2시 김해문화의전당 아람배움터에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를 열었다. 이날 연수에는 일반 시민과 김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비 사회적 기업 '(사)문화와 사람들', 지역 문화예술동아리, 장유 시민단체 '우리동네사람들'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략)

이와 함께 문화다양성 토크숍도 마련됐다. 광주 대인예술시장 전고필 총 감독을 초청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여성 노인에 대한 편견 극복 방법을 묻는 질문에 전 감독은 “경북 칠곡에서는 문해교육을 받은 할머니들이 시집 <시가 뭐꼬>을 발간해 조명을 받았다.

충북 제천에서는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이 '호랑이 담뱃대'라는 동아리를 구성해 아이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줘 큰 화제가 됐다. 이처럼 주목 받을만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해 어르신들을 문화주체로 만들어 거리감을 좁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인이 많은 동상동에서 문화다양성 축제가 열리지만 선주민과 이주민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 감독은 “구도심 주민들은 이익을 위해 축제를 유지하기에만 급급하다. 축제의 주체가 외국인이면 외국인만 모이는 행사가 된다. 주민들이 먼저 나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모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동네사람들 강미경 팀장은 “인간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문화다양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각자 삶에 있어 다양성이 있고 그 방식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수에 참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송수빈(25) 언어치료사는 “틀에 박힌 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깰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문화다양성 사업은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청년미술작가 박가범(28) 씨는 “이주노동자와 원주민간의 갈등 등 김해에서 해결해야 할 문화다양성 문제는 명확하다. 콘텐츠 생산자로서 문화다양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문화다양성의 첫 걸음은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는 이론교육과 참여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냈다.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가자 간 원활한 소통은 시각의 격차 범위를 좁혔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차별'이라는 단어가 만연하고 관련된 문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철폐를 위한 더 큰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손잡이, 소식가, 채식주의자, 미혼모 등 우리와는 다른 이들이 존중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

김해뉴스 배미진 문화부 기자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1. 설문 응답 현황

■ 지역별 평균 27명씩 참여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설문 응답율

지역	참여자	설문응답자	설문 응답율
익산	24명	23명	95.8%
성북	20명	16명	80.0%
부산	25명	22명	88.0%
인제	28명	24명	85.7%
청주	29명	29명	100.0%
전남	26명	22명	84.6%
김해	33명	29명	87.9%
세종	28명	18명	64.3%
소계	213명	183명	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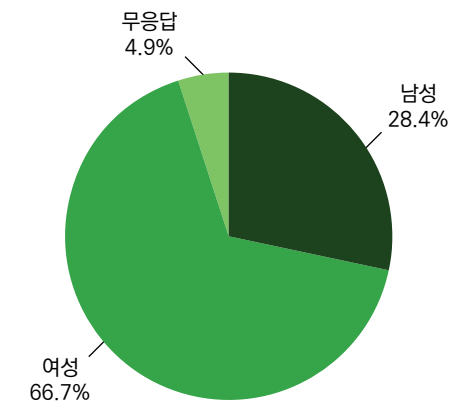
기본과정
“문화다양성으로 한걸음”

2. 기본 사항 및 참여 동기

■ 여성과 30대 및 문화재단관계자를 주축으로, 모인 다양한 참여자들

기본과정에 참여한

설문 응답자들의 2/3 이상은 여성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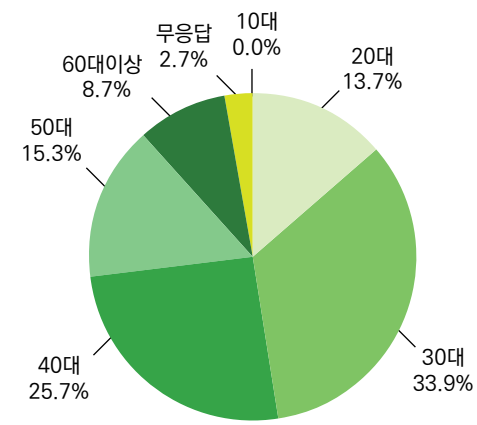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성별 구성 비율

지역별로는 특히, 성북과 청주에서 여성 비율이 높은 반면, 전남과 인제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로 참여하였습니다.

〈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각 지역별 성별 구성

지역	남성	여성	무응답	합계
익산	30.4%	65.2%	4.3%	100.0%
성북	18.8%	81.3%	0.0%	100.0%
부산	36.4%	63.6%	0.0%	100.0%
인제	29.2%	58.3%	12.5%	100.0%
청주	6.9%	89.7%	3.4%	100.0%
전남	45.5%	45.5%	9.1%	100.0%
김해	27.6%	65.5%	6.9%	100.0%
세종	38.9%	61.1%	0.0%	100.0%
합계	28.4%	66.7%	4.9%	100.0%

연령별로는
절반 이상이 30대와 40대였습니다.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연령별 구성 비율

8회 동안 진행된 기본과정에는,
문화재단 관계자 외 기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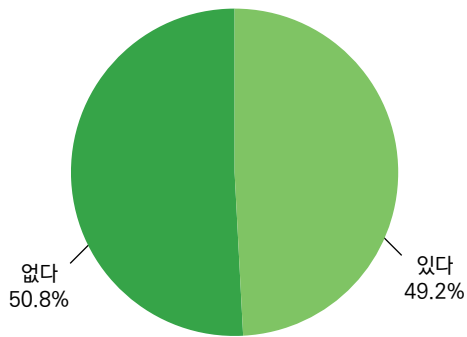
〈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각 지역별 응답자의 활동

	문화재단 관계자	문화 기획자	공무원	다문화 관계자	시민단체 활동가	기타	무응답	합계
익산	52.2%	13.0%	4.3%	8.7%	8.7%	13.0%	0.0%	100.0%
성북	31.3%	18.8%	18.8%	0.0%	0.0%	25.0%	6.3%	100.0%
부산	68.2%	0.0%	0.0%	0.0%	9.1%	22.7%	0.0%	100.0%
인제	8.3%	8.3%	16.7%	8.3%	4.2%	41.7%	12.5%	100.0%
청주	7.1%	14.3%	0.0%	0.0%	10.7%	53.6%	14.3%	100.0%
전남	54.5%	18.2%	0.0%	0.0%	4.5%	22.7%	0.0%	100.0%
김해	6.9%	10.3%	17.2%	20.7%	20.7%	24.1%	0.0%	100.0%
세종	0.0%	0.0%	100.0%	0.0%	0.0%	0.0%	0.0%	100.0%
합계	27.3%	10.4%	16.9%	5.5%	8.2%	26.8%	4.4%	100.0%

(무효 : 1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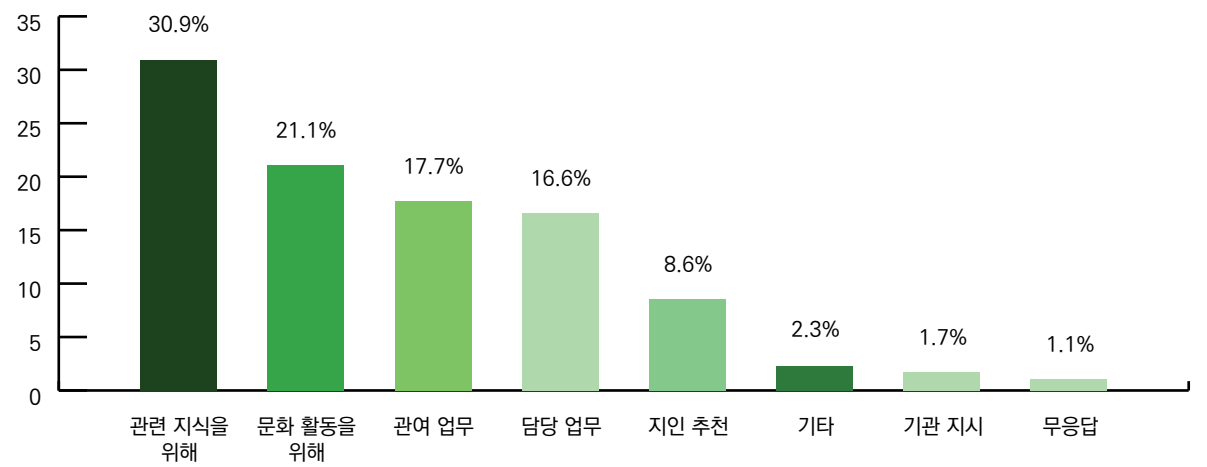
■ 문화다양성이라는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

응답자들의 약 50%는 다양성 연수 경험에 있어
본 문화다양성 연수가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다양성 연수 참여 경험

특히,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
본 기본과정을 찾은 분들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
참여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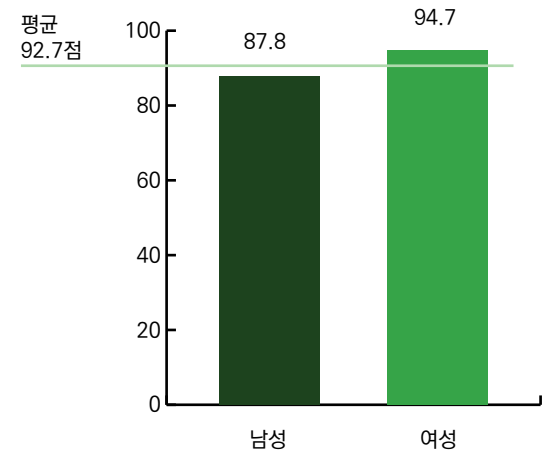
(무효 : 8명 제외)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참여 동기

3. 만족도

■ 높은 참여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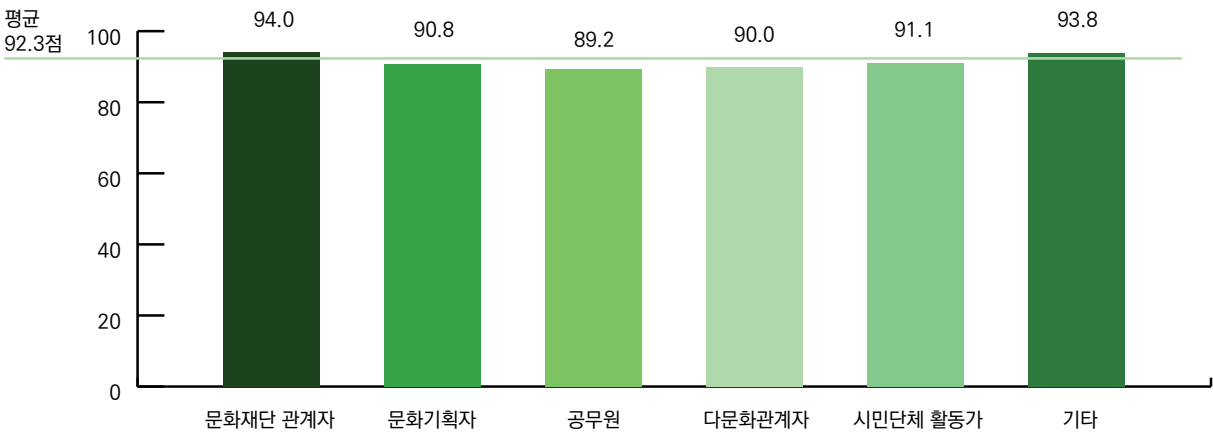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자신이 참여한 기본과정에,
평균 5점 만점에 4.7점, 100점 만점에 92.7점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94.7점으로 남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표준편차 : 0.5 (남성:0.6/여성:0.5) / 무효 : 9명, 무응답 : 3명 제외)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성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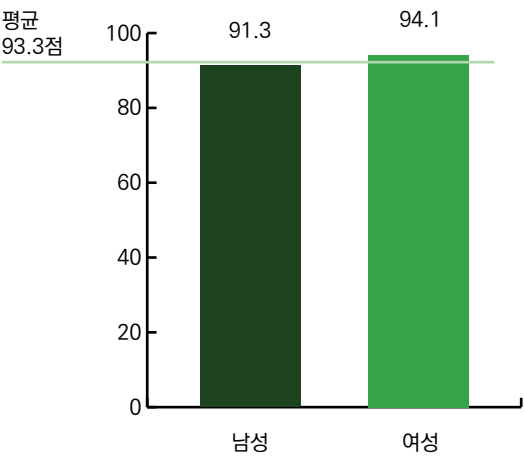
활동별로는 재단 관계자가 9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종사자가 93.8점, 시민단체 활동가가 91.1점 등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표준편차 : 0.3(문화재단관계자:0.6/문화기획자:0.7/공무원:0.6/다문화관계자:1.1/시민단체활동가:0.8/기타:0.5) / 무효 : 9명, 무응답 : 3명 제외)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활동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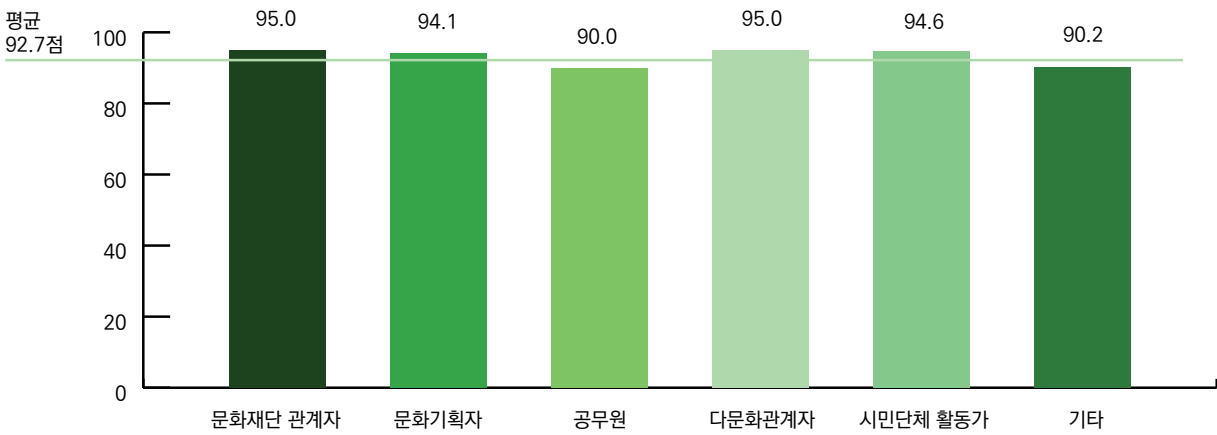
문화다양성 연수의 재참여 의사는,
평균 5점 만점에 4.7점, 100점 만점에 93.3점으로
높은 재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94.1점으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준편차 : 0.5 (남성:0.5/여성:0.5) / 무효 : 9명, 무응답 6명 제외)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성별 재참여 의사

활동별로는 문화재단관계자와 다문화관계자가 각각 95.0점으로,
높은 재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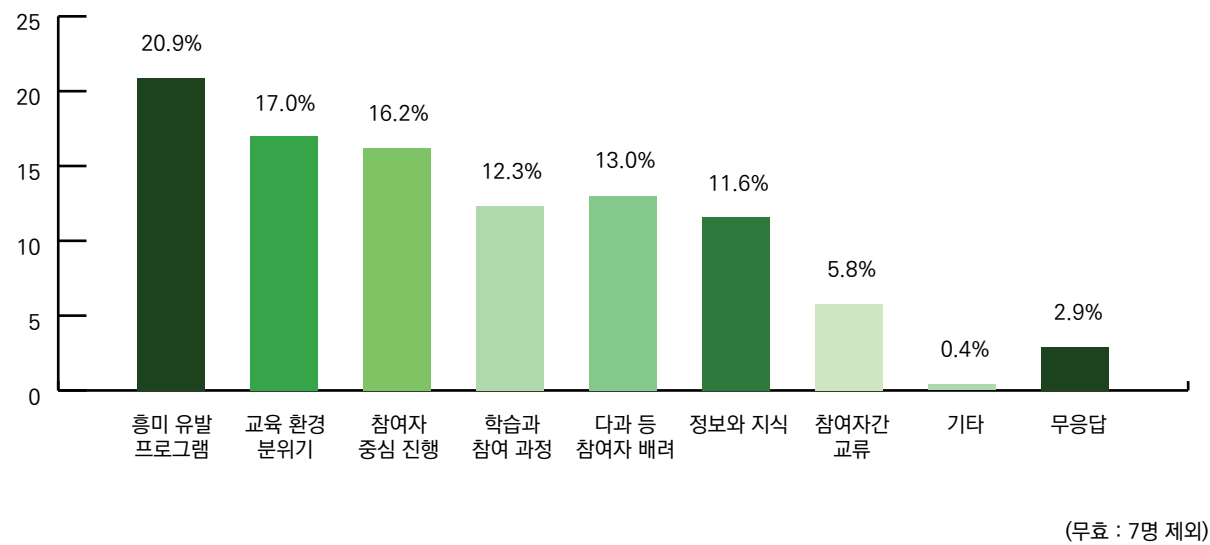


(표준편차 : 0.3(문화재단관계자:0.6/문화기획자:0.9/공무원:0.6/다문화관계자:1.6/시민단체활동가:1.3/기타:0.5) / 무효 : 9명, 무응답 : 6명 제외)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활동별 재참여 의사

■ 만족한 프로그램과 현장 분위기

응답자들은 기본과정에서
흥미 유발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만족하였으며,
교육 환경과 분위기, 참여자 중심 진행 등의 순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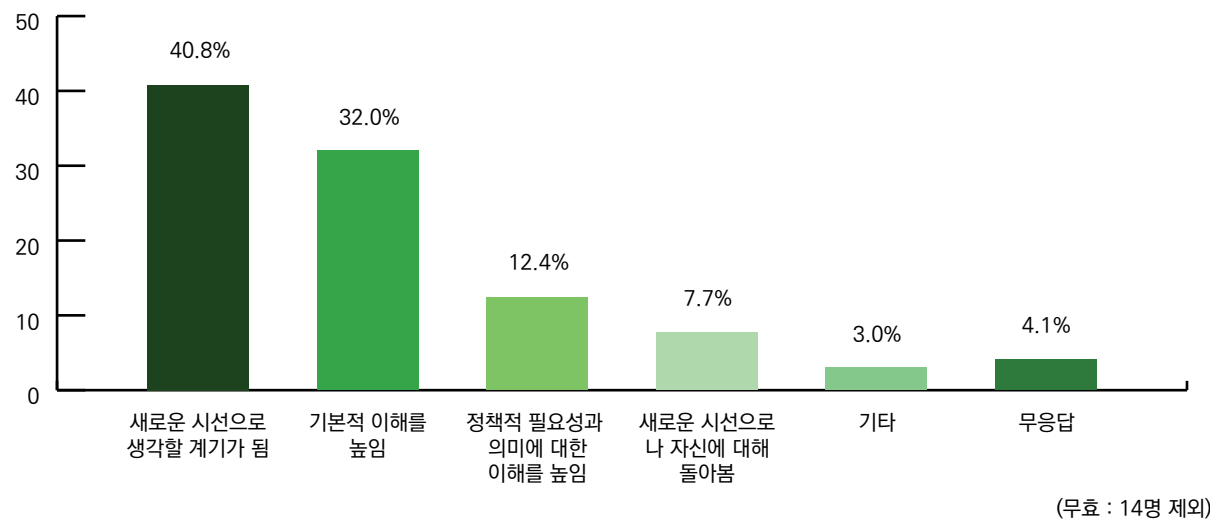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만족 지점

4. 본 연수를 통해...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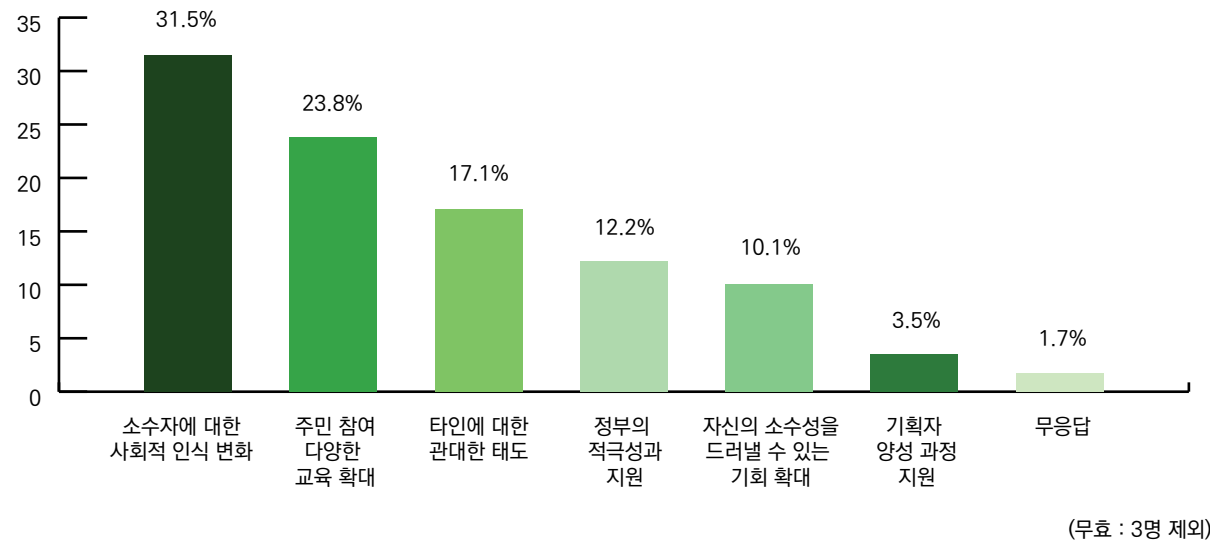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기본과정 참여를 통해 새로운 시선으로 문화다양성을 생각할 계기를 갖게 되었으며,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연수를 통해 얻은 점

■ 문화다양성을 위해...

응답자들은 문화다양성에 있어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의 확대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 문화다양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은...

본 연수를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다양성의 실생활화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등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문화다양성에 대해 많은 이해와 유익한 정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토론 거리를 집게에 다는 것, 강연자들이 재미난 소품으로 권위를 허무는 것, 맛있는 음식과 여유로운 휴식시간. 새로웠고 또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들은 것 이야기 나눈 것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 문화다양성은 불편한 이웃과도 같이 살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문화다양성 뿐 아니라 부산 지역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 잠재된 의식을 깨우게 하면서... 인간의 다양성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확립되길 바라는 시간이었다.
-

반면,
시간의 부족,
구체적 사례 제시 등에 대해
아쉬워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교육 내용이 짧아 아쉬움이 있음
 - 교육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진행을 위해 강의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의가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 인제 지역에서의 강의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오시면 그 지역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면 더 다양하고 실용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많은 활동으로 이해와 관대함에 아름다운 관계가 많이 활성화되기를 많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론에 상응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주시면 생각과 삶의 행동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교육의 목적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사례들이 소개되면 좋겠습니다)
-

또한,
문화다양성의 확산을 위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의 연수 참여 기회 확대 등의 의견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
- 좀 더 많은 직원분들이 문화다양성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강좌나 토론회가 많아야 할 듯 합니다.
 -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 수업 등이 있을 때 적극적인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매개자 교육을 많이 하여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자유학기제 또는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매개자보수교육 필요)
 - 좀 더 다름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사업이 추진 된지도 꽤 지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그 지원의 폭이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예산확대를 통하여 관련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파트 3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심화과정)
- 문화다양성으로 마주하다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심화과정)의 현황과 내용

1.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기획 내용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내용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집합교육으로 기본 인식을 기초로
문화다양성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은
다음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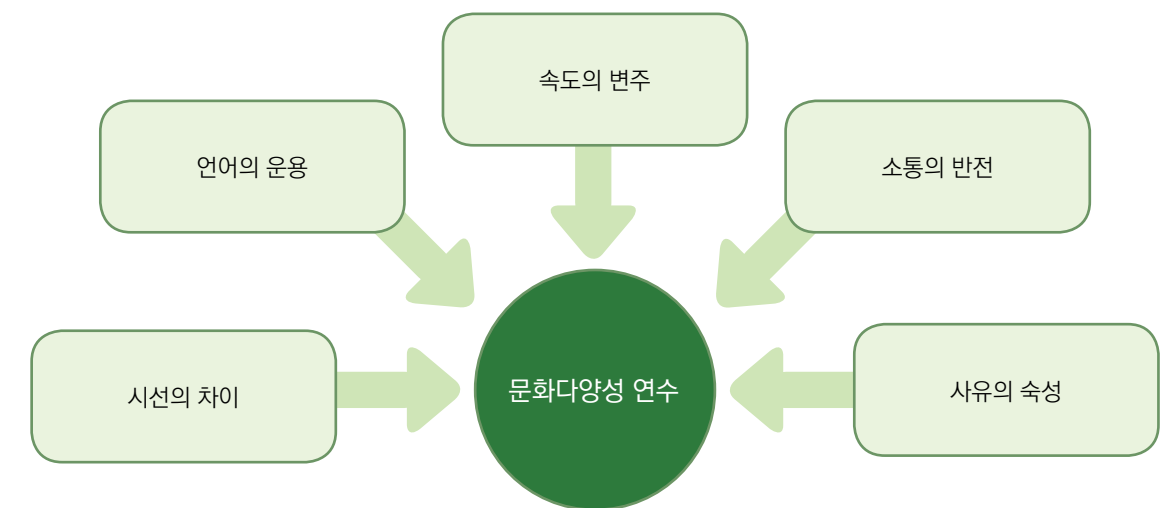
- 문화다양성 현장 전문 인력의 문화다양성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운영.
- 숙박교육을 통해 집중적이고 심도 깊은 연수를 운영.
- 다양한 내용과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사유를 촉진.
- 참여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를 통해 연수의 가치 증대.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운영 방향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의 다양성 전문 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문성을 높임.
- 교육 참여자들의 상상력과 기획력을 촉진하는 접근방식과 활동 변수를 통해 다양성 근육을 축적함.

따라서 참여자가
기획의 다양한 시도와 변화과정을 직접 목격하도록
프로그램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내장하였습니다.
1박 2일 동안 비틀고, 경계를 넘는
활동과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기획적 방법

이러한 준비를 통해 심화과정은
서울에서 1박 2일 집합교육의 형태로 3회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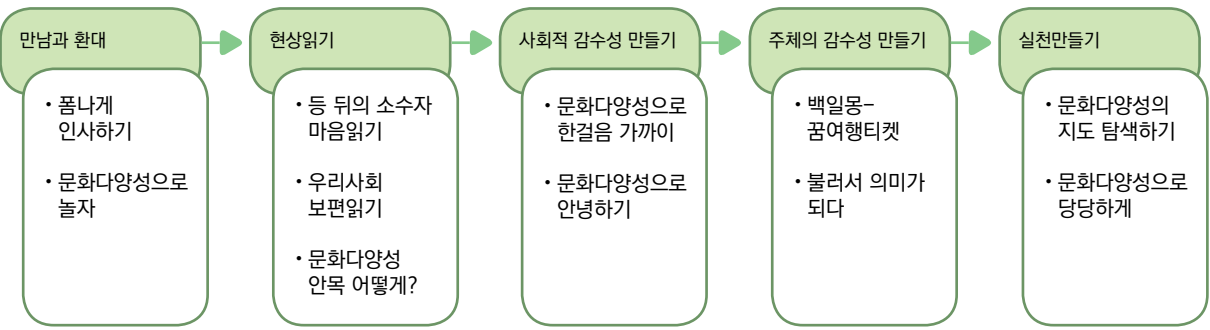
〈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일정

구분	일시	장소	대상
1회	2017. 2. 6.(월) - 7.(화)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지역문화재단과 협력단체
2회	2017. 2. 16.(목) - 17.(금)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지역문화재단과 협력단체
3회	2017. 2. 20.(월) - 21.(화)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일반 관심 있는 시민 및 관계자

2.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운영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프로그램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3회 진행하였습니다.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구성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는
지역 방문교육에 이어진 워크숍이므로
기본적 정보 제공은 최소화하였습니다.
1박 2일(24시간) 동안 진행되는 심화과정은
자기활동과 집단토론, 강의 및 자기발견의 시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날 프로그램

시간	배분	주제	목적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13:30 ~14:00	30분		참가자 등록		
14:00 ~14:50	50분	만남과 환대	호명과 각자의 자리 만들기	활동1 -품 나게 인사하기	- 참여자가 현장에 등장하는 시간으로 호명과 환대의 시간임. -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도록 인사, 소개, 환대의 과정을 진행함. - 질문카드 작성하고 배달하는 과정을 로맨틱하게 구성함. - 배달인을 스탬프로 할 수도 있고 참여자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할 수도 있음.
14:50 ~15:20	30분		문화다양성 관점 재인식	강의1 -문화다양성으로 놀자	- 기본과정에서 채 인식하지 못한 문화다양성 관점을 상기시킴. - 심화과정에 자연스럽게 결합하도록 함. - 문화다양성 가치 카드를 만들어 인식의 공통분모 만들기 과정을 진행함. (복선작업)

15:20 ~15:30	10분			휴식
15:30 ~16:10	40분	우리 사회의 보편과 만나기	강의2 -우리사회 보편 읽기	- 우리사회의 권력 구조와 약자에 대한 사회제도적 상황 및 인권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함. -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성 관점의 의미 이야기함.
16:10 ~16:50	40분	나의 인식과 만나기	활동2 -등 뒤의 당신, 마음읽기	- 참여자가 각각 등 뒤에 다양한 사람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상호 활동을 함. - 낯설과 차별, 소외를 경험하면서 문화적 타인의 편견의 폭력성을 인식함. - 사회적 편견을 보고 등 뒤의 사람을 이야기함. - 등 뒤에는 소수자도 있지만 일반인(다만 낯선)도 있음을 확인함.
16:50 ~17:00	10분	현상읽기		휴식
17:00 ~17:50	50분	토론을 통해 다양성 각자의 언어 만들기	마주이야기1 -나는 어떻게 불리고 있나?	- 우리 사회 차별과 편견에 대한 본인 혹은 주변의 경험을 공유함. - 편견과 차별에 침묵하는 경험세계로부터 안목을 갖기에 대한 논의 진행함. - 사회적 안목과 문화기획자로서의 안목에 대한 관점 정리를 함.
17:50 ~18:50	60분			저녁 식사
18:50 ~19:30	40분	문화다양성을 훼손하는 요소에 인식하기	강의3 -문화다양성 한걸음 가까이	- 인간이 가진 다양성이 훼손되는 근대 담론을 분석함. - 주체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다양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함. - 문화다양성 활동 카드 만들기 과정을 진행함. (복선작업)
19:30 ~20:20	50분	이슈를 중심으로 문화다양성의 대안 만들기	마주이야기2 -문화다양성으로 안녕하기	- 조별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이슈 사진을 골라 문제점을 이야기함. - 대안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실천 방향을 모색함. - 리디자인 활동으로 배너, 현수막, 포스터 제작함.
20:20 ~21:00	40분	주체의 감수성 만들기	나의 소수성을 이해하고 주체로 서기	- 주체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자신의 감각을 해체하는 활동함. - 불안과 경계가 해체된 감정에 대한 자기 경험을 공유함. - 문화다양성은 자기 내면의 주체를 만나고 이를 공적으로 표현함. - 가는 티켓, 오는 티켓을 통해 주체의 경로를 생각해 봄. - 명상이 아니라 명상을 통해 주체의 무의식을 만나봄.
21:00 ~				휴식 및 취침


둘째날 프로그램


시간	배분	주제	목적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08:00 ~09:00	60분				아침 식사
09:00 ~09:40	30분	주체의 감수성 만들기	심장을 가진 일상 만남으로 다양성 감수성을 높이기	활동4 -불러서 의미가 되다	- 일상의 주체로 서서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과정임. - 작고 소박한 일상에 눈을 뜨고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주체를 세움. - 일상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기 그래서 삶의 본질을 표현해 봄.
09:40 ~10:20	40분		문화다양성 가치와 활동을 중심으로 실천방향 모색하기	강의4 -문화다양성의 지도 탐색하기	- 전날 진행한 문화다양성 가치카드와 활동카드로 참여자의 인식을 분석함. - 문화다양성 활동 지도를 통해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색함. - 문화다양성 전문가의 자기 정리와 실천 방향에 대해 제안함.
10:20 ~10:40	20분	실천 만들기			휴식
10:40 ~12:20	120분		토론을 통해 개인의 삶과 활동을 재구성하기	마주이야기3 -문화다양성으로 당당하게	- 문화다양성의 자기실천 문제를 이야기하고 공통의 과제를 도출해 봄. - 교육에 대한 소감과 자기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봄. - 현장 아카이빙 작가의 시선을 감상하고 작가와 잠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짐.
12:20 ~13:00	40분				식사와 마무리


프로그램 속 프로그램


시간	배분	주제	목적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1박2일	현장 아카이빙	타인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기	현장 그림 작업		- 1박 2일 동안의 공개 혹은 미공개 작가의 작업을 통해 우리를 보는 또 다른 시선을 읽음. - 이를 통해 타자의 타자인 나를 읽고 다양성의 시선을 경험함.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을 구성한 프로그램 기획서


 손바닥 기획서									
구분	주제	권력억압	종교다양성	사회관념	개인관념	종합	주체	공동체	기타
	대상	일반	다인종	여성	성정체성	아동	연령	지역출신	기타
	활동	지각	촉각	시각	청각	언어	몸 전체	종합	기타
	외부 매개체	미술	음악	신체활동	종합	인지활동	실외활동	시각자료	기타
제목	펜팔 데이트 : 당신에게 궁금한 사소한 몇 가지 질문								
아이디어 출처	김성진								
기획의도	인사하기								
프로그램 내용	1. 참가자들에게 예쁜 편지지를 한 장씩 나누어 준다. 2. 편지지를 받은 참가자들은 OO님께 쓰는 편지를 쓴다. OO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고, 이제 곧 만나게 된다. 이 편지는 첫 데이트를 앞두고 적는 편지이다. 3. 편지지의 반 장 정도 분량으로 OO님에게 궁금한 몇 가지 질문을 적는다. 나는 어떠한데 당신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도 좋다. 편지를 쓰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4. 편지를 다 쓰면 집배원(스텝)이 편지를 걷어, 편지를 다른 테이블로 배달한다. 5. 편지가 테이블에 도착하면 랜덤으로 편지를 한 장씩 받는다. 6. 참가자들은 편지를 읽고 편지에 답한다(시간이 걸리면 이 부분은 생략) 7. 한 사람이 일어나 자신이 받은 편지를 읽으며 답한다. 8. 답변(답장)이 다 끝나면 편지를 보낸 사람을 찾는다. 9. 편지를 보낸 사람이 일어나 둘이 인사하고 자신의 편지를 읽고 답한다. 10. 모든 사람이 다 끝날 때까지 9번을 반복한다.								
기대효과	- 질문은 관심이며, 반짝이는 질문은 사람의 새로운 면을 끌어낼 수 있음. - 서로의 질문을 통해 대답하고, 서로를 알아봄.								
소요시간	20~30분								
팁	- 시간이 늘어지기 쉬우므로, 사회자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함.								


<div>  <div>손바닥 기획서</div> </div>									
구분	주제	권력억압	종교다양성	사회관념	개인관념	종합	주제	공동체	기타
	대상	일반	다인종	여성	성정체성	아동	연령	지역출신	기타
	활동	지각	촉각	시각	청각	언어	몸 전체	종합	기타
	외부 매개체	미술	음악	신체활동	종합	인지활동	실외활동	시각자료	기타
제목	문화다양성 한걸음 가까이								
아이디어 출처	최혜자								
기획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이 가진 다양성이 훼손되는 근대 담론을 분석하기 - 문화다양성 활동 카드 만들기 (복선작업) 								
프로그램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점의 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남철, 신영복 문화다양성 가치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로 나눠진 참여자들에게 각각 7장의 카드를 준다. - 카드에 자기가 생각하는 문화다양성을 동작하게 하는 활동어를 적는다. - 7개의 활동어 중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 한 것을 옆 사람에게 건네준다. - 과정을 2번 반복 후, 내게 있는 카드 중 가치가 덜한 것을 2개 골라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 다른 사람이 내려놓은 카드 중 내게 중요한 것을 한 장 고른다. - 총 6개의 카드 중 가장 가치가 덜한 카드를 내려놓는다. - 남은 5개의 카드를 A4용지에 붙인다. - 조별로 모아진 가치를 모아 공통의 가치어를 추출한다. 네 장의 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로시마 원폭 투하 - 2차대전, 아이히만의 재판과 한나 아렌트 〈악의 보편성〉 - 68혁명 - 문화다양성 선언 								
기대효과	기본과정에서 채 인식하지 못한 문화다양성 관점 상기시켜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공통분모를 만들어 봄.								
소요시간	40분								
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는 진행 중 몇몇 참여자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 카드와 고른 이유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참여자들간 서로 선택한 중요 가치에 대해 공유되도록 함. 								


<div>  <div>손바닥 기획서</div> </div>									
구분	주제	권력억압	종교다양성	사회관념	개인관념	종합	주제	공동체	기타
	대상	일반	다인종	여성	성정체성	아동	연령	지역출신	기타
	활동	지각	촉각	시각	청각	언어	몸 전체	종합	기타
	외부 매개체	미술	음악	신체활동	종합	인지활동	실외활동	시각자료	기타
제목	그들이 말하는 차이 그리고 차별								
아이디어 출처	이완								
기획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와 약자에 대한 사회제도적 상황 및 인권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성 관점의 의미를 이야기함. 								
프로그램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종주의로 살펴본 차별과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특회, 아파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여론 반응, 쌀람청주 등 대중매체 속 다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인용 비율과 보도성향 - 수영장 안내 표지로 살펴본 인종차별주의 일상 속 차별과 다양성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모티콘, 건강가정지원센터 포스터 - 의도하지 않은 차별에 대한 시사점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한에 대한 현재 일본시민사회의 움직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질문 던지기 								
기대효과	일상 속에 있는 차별과 차이에 대해 조금 더 민감해지고, 의심을 던질 수 있음.								
소요시간	40분								
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광고, 이모티콘 등 대중매체 이미지를 보여줄 때, 참여자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함. 								


<div>  <div>손바닥 기획서</div> </div>									
구분	주제	권력억압	종교다양성	사회관념	개인관념	종합	주체	공동체	기타
	대상	일반	다인종	여성	성정체성	아동	연령	지역출신	기타
	활동	지각	촉각	시각	청각	언어	몸 전체	종합	기타
	외부 매개체	미술	음악	신체활동	종합	인지활동	실외활동	시각자료	기타
제목		우리 사회 보편 읽기 - 소수자 차별을 넘어 평등 사회로							
아이디어 출처		박경태							
기획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회의 권력 구조와 약자에 대한 사회제도적 상황 및 인권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 -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성 관점의 의미 이야기함. 							
프로그램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수자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의 정의와 예시들 -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재한 동포들을 중심으로 2. 소수자를 보고 있는 시선과 미래전망에 대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지위만 부각 - 주류와 다름이 강조되는 타자화 - 기원, 장소, 역사 등으로부터 분리된 타자화 - 사회적, 구조적 문제와 무관한 개인 - 기존 이데올로기를 재생산 - 소수자 사이의 차인 - 2016년 총선 결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3. 모두의 인권을 위한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권리란 무엇인가 - 다양성, 다름, 차이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기 - 정상의 범위에 대한 질문 제기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통해 다양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장함. - 사회문제의식이 아닌 일상에서의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발돋움판을 마련함. 							
소요시간		40분							
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드러운 진행을 위해 무선마이크를 준비함. 							

<div>  <div>손바닥 기획서</div> </div>									
구분	주제	권력억압	종교다양성	사회관념	개인관념	종합	주체	공동체	기타
	대상	일반	다인종	여성	성정체성	아동	연령	지역출신	기타
	활동	지각	촉각	시각	청각	언어	몸 전체	종합	기타
	외부 매개체	미술	음악	신체활동	종합	인지활동	실외활동	시각자료	기타
제목		등 뒤의 소수자, 마음 읽기							
아이디어 출처		등 뒤의 소수자(인권 날다 수록), 이마 위의 소수자(캐나다 고등학교 프로그램)							
기획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안에 있는 편견을 꺼내보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편견과 불편을 드러내는 과정 							
프로그램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 뒤의 소수자의 프로그램 소개와 행동지침을 소개한다. 2. 스탭들이 참여자 등 뒤에 역할이 적혀진 라벨지를 붙여준다. 3. 서로의 등 뒤를 보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4. 3~5명의 사람들을 만나 등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평소의 생각, 혹은 사회적인 편견을 적어본다. 5. 적었던 편견을 행동으로 표현해보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편견을 행동으로 표현해본다. 6. 내가 누구였는지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한 서운함을 공유한다.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견과 불편을 마주하는 것 뿐만 아니라 편견과 불편을 직접 느껴보며,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에서 느껴봄. 							
소요시간		40분							
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이 잔잔히 나와서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은 풀어줄 수 있게 함. - 등 뒤에 직접 쓰는 것이 낯설 수 있다. 포스트잇을 준비하여, 그 위에 편견을 작성하여 등 뒤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 							

<div>  <div>손바닥 기획서</div> </div>									
구분	주제	권력억압	종교다양성	사회관념	개인관념	종합	주체	공동체	기타
	대상	일반	다인종	여성	성정체성	아동	연령	지역출신	기타
	활동	지각	촉각	시각	청각	언어	몸 전체	종합	기타
	외부 매개체	미술	음악	신체활동	종합	인지활동	실외활동	시각자료	기타
제목	나는 어떻게 불리고 있나?								
아이디어 출처	토크숍 - 마주이이야기								
기획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 차별과 편견에 대한 본인 혹은 주변의 경험을 공유함. - 편견과 차별에 침묵하는 경험세계로부터 안목을 갖기에 대한 논의 진행함. - 사회적 안목과 문화기획자로서의 안목에 대한 관점 정리를 함 								
프로그램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들이 착석한 테이블에 포스트잇을 놓는다. 자유롭게 질문하고, 붙일 수 있도록 질문판을 마련한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참여자, 전문가, 비전문가 모두가 대답할 수 있다.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비전문가, 참여자의 구분 없이 문화기획자로서 고민을 나눠봄. - 사회적 안목과 문화기획자로서의 안목에 대해 관점 정리를 함. 								
소요시간	50분								
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게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도록 무선마이크 준비함. - 다양한 종류의 포스트잇 준비함. 								

<div>  <div>손바닥 기획서</div> </div>									
구분	주제	권력억압	종교다양성	사회관념	개인관념	종합	주체	공동체	기타
	대상	일반	다인종	여성	성정체성	아동	연령	지역출신	기타
	활동	지각	촉각	시각	청각	언어	몸 전체	종합	기타
	외부 매개체	미술	음악	신체활동	종합	인지활동	실외활동	시각자료	기타
제목	문화다양성 한걸음 가까이								
아이디어 출처	최혜자								
기획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이 가진 다양성이 훼손되는 근대 담론을 분석하기 - 문화다양성 활동 카드 만들기 (복선작업) 								
프로그램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을 훼손하는 것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입된 상식 - 폭력적 정형화 - 상업화 문화다양성 활동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로 나눠진 참여자들에게 각각 7장의 카드를 준다. - 카드에 자기가 생각하는 문화다양성을 동작하게 하는 활동어를 적는다. - 7개의 활동어 중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한 것을 옆 사람에게 건네준다. - 과정을 2번 반복 후, 내게 있는 카드 중 가치가 덜한 것을 2개 골라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 다른 사람이 내려놓은 카드 중 내게 중요한 것을 한 장 고른다. - 총 6개의 카드 중 가장 가치가 덜한 카드를 내려놓는다. - 남은 5개의 카드를 A4용지에 붙인다. - 조별로 모아진 가치를 모아 공통의 가치어를 추출한다. 문화다양성의 오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에 대한 무지 - 인간에 대한 불신 - 주체의 상실 								
기대효과	- 주체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다양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함.								
소요시간	40분								
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는 진행 중 몇몇 참여자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활동어 카드와 고른 이유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참여자들간 선택한 중요 활동어가 무엇인지 공유함. 								

<div> 손바닥 기획서</div>									
구분	주제	권력억압	종교다양성	사회관념	개인관념	종합	주체	공동체	기타
	대상	일반	다인종	여성	성정체성	아동	연령	지역출신	기타
	활동	지각	촉각	시각	청각	언어	몸 전체	종합	기타
	외부 매개체	미술	음악	신체활동	종합	인지활동	실외활동	시각자료	기타
제목		다양성 캠페인 RE:디자인							
아이디어 출처		유다원							
기획의도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이슈를 골라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 새롭게 RE:디자인하기							
프로그램 내용		<div>1. 다양성 캠페인 RE:디자인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기</div> <div>2. 다양한 캠페인 홍보물, 영상을 소개한다.</div> <div>3. 각자 자신이 한 생각, 느낌을 공유한다.</div> <div>4. 각 홍보물, 포스터 등에 대해 느꼈던 문제점을 체크해본다.</div> <div>5. 체크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전체 컨셉을 정한다.</div> <div>6. 우리의 방식대로 새로운 캠페인 홍보물을 만들어보자</div> <div>7. 조별로 원래 캠페인 홍보물과 다시 디자인한 홍보물을 대비하여 팀별로 공유한다.</div> <div>8.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한다.</div>							
기대효과		-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캠페인 홍보물, 영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봄.							
소요시간		50분							
팁		<div>- 음악이 잔잔히 나와서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은 풀어줄 수 있게함.</div> <div>- 조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div>							

<div> 손바닥 기획서</div>									
구분	주제	권력억압	종교다양성	사회관념	개인관념	종합	주체	공동체	기타
	대상	일반	다인종	여성	성정체성	아동	연령	지역출신	기타
	활동	지각	촉각	시각	청각	언어	몸 전체	종합	기타
	외부 매개체	미술	음악	신체활동	종합	인지활동	실외활동	시각자료	기타
제목		백일몽-꿈여행 티켓							
아이디어 출처		도호야							
기획의도		<div>- 각자 다양한 상상력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무의식에 몸을 맡기고 편안히 떠올린 상상들을 나누는 백일몽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하려 함.</div> <div>-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무의식 버전이 아니라 공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미션을 주려 함.</div>							
프로그램 내용		<div>1. 자장차, 자장등, 자장가 준비된 다음.</div> <div>2. 어디든 가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꿈여행 왕복 항공권을 건네준다. (떠나는 편의 출발 일시, 목적지, 이름을 기입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꿈여행 항공의 출발을 알린다.)</div> <div>3. 5인 그룹으로 나뉘어 각자 침낭과 베개를 찾아 편안하게 자리를 잡는다.</div> <div>4. 한참이 흐르고 어디에 가서 누구와 무얼 어떻게 하나 생각한다.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든 순간, 조금씩 음악소리가 커지고, 불빛이 밝아진다.</div> <div>5. 꿈 여행 왕복 항공권의 돌아오는 편에 실제 백일몽 중에 다녀온 여행지와 만난 사람 등을 기록한다.</div> <div>6. 서로 이야기 나눈다.</div>							
기대효과		<div>- 누구나 꿈을 꾸다. 어떤 꿈을 꿀까? 그리고 그 이유들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함.</div> <div>- 서로에게 놀라고, 공감하고, 다양한 꿈들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갖음.</div>							
소요시간		30분 - 1시간							
팁		<div>- 명상을 하기 위한 최적화된 환경이 아닌 명상이 방해될 수 있는 요소들도 배치함.</div> <div>-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 다른 생각들도 이야기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함.</div>							

손바닥 기획서									
구분	주제	권력억압	종교다양성	사회관념	개인관념	종합	주체	공동체	기타
	대상	일반	다인종	여성	성정체성	아동	연령	지역출신	기타
	활동	지각	촉각	시각	청각	언어	몸 전체	종합	기타
	외부 매개체	미술	음악	신체활동	종합	인지활동	실외활동	시각자료	기타
제목	심장을 가진 일상의 회복								
아이디어 출처	김유선								
기획의도	-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전체의 삶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그 과정을 일상에서 흔히 보는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증명해본다.								
프로그램 내용	1. 주변에 흔히 보는 식물을 채집한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자연의 문양(눈꽃 등), 도형(삼각형 등)에서 차용할 수도 있다. 2. 자기복제성을 가진 식물의 예를 PT로 본다. 진행 과정 전체를 슬라이드로 본다. 3. 투명필름지에 채집한 식물을 붙여서 완성한다. 4. 슬라이드마운트에 작품을 넣어 액자화 한다. 5. 전체 인원이 큰 원(또는 두 개의 다른 원)을 그리고 서서 '인간 환등기'가 되어 개별 작품을 감상한다. 6. 개별 작품에 대한 느낌을 나눈다.								
기대효과	- 식물계의 부분과 전체가 복제되고 '자기닮음화'를 통해 반복되고 있음을 눈으로 관찰함으로써, 우리의 일상도 심장을 가지고(실천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작동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과 '우리'라는 전체 삶의 회복이 가능함을 확인함. - 건강한 삶의 회복은 실천을 필요로 하고, 심장을 가진 내가 마음과 몸을 움직일 때 가능하며, 문화다양성 갖는 삶이란 나의 삶을 회복하는 일과 같음을 생각해봄.								
소요시간	30분								
팁	프로그램 진행 전 참여자들에게 야외에서 식물을 채집하도록 안내하여, 참여자들이 가벼운 산책과 함께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유도함.								

손바닥 기획서									
구분	주제	권력억압	종교다양성	사회관념	개인관념	종합	주체	공동체	기타
	대상	일반	다인종	여성	성정체성	아동	연령	지역출신	기타
	활동	지각	촉각	시각	청각	언어	몸 전체	종합	기타
	외부 매개체	미술	음악	신체활동	종합	인지활동	실외활동	시각자료	기타
제목	문화다양성 지도 탐색하기								
아이디어 출처	최혜자								
기획의도	- 전날 진행한 문화다양성 가치카드와 활동카드로 참여자의 인식을 분석하기 - 문화다양성 활동 지도를 통해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프로그램 내용	1. 문화다양성 지도 - 문화다양성의 4대 가치어와 5대 활동어를 살펴본다. - 결합된 문장을 통해 우리 안의 문화다양성 지도를 그려본다. 2. 문화다양성의 내용 - 사회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 세계화와 미래사회를 중심으로 - 주체의 삶을 중심으로 3. 문화다양성의 방법 - 일상의 편견과 차별에서의 방법 -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서의 방법 - 문화적 편견과 차별에서의 방법								
기대효과	- 문화다양성 전문가의 자기 정리와 실천 방향에 대해 제안함.								
소요시간	40분								
팁	- 어떻게 비틀고, 낯설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던져봄. - 실천의 영역에서의 질문을 던져봄.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참여자 리뷰

문화다양성은 사랑같은 느낌... 그 어렵지만은 않은 경험



성동문화재단 정책협력팀 오유경

문화다양성이란 것이 무엇일까..

대충 단어만 들었을 때는 정의에 대한 느낌은 왔지만,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명확한 단어들로 설명할 수 없었다.

이번에도 그냥 애매모호한 정의만 가지고

연수를 마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연수 장소에 갔다.

프로그램을 하나하나씩 진행할 때마다

다양성과 사회, 그리고 문화에 대해 어렵다..라는 생각보다

가볍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연수라고 하면 딱딱할 것만 같던

내 고정관념을 깨주는 프로그램이었다.

2일째 되던 날 마지막 최혜자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데

문득 얻은 깨달음(?)이 있었다.

문화다양성이란 단어는 마치 ‘사랑’이라는 단어와 같구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각자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지만

그 정의가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는다.

또한,

각자의 정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정의일 것이다.

우리는 책에서도 대화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다른 의견일지라도, 나와 다른 정의일지라도

우리는 불편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자 내린 정의,

즉 경험을 존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다양성’이라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문화다양성 정의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토론과 다양한 직접 경험들을 통해

끊임없이 ‘문화다양성’이라는 단어에 대해 사유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처음에 내렸던 정의에 대해 고정시키지 않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이 행위들, 사고들 그 자체가

바로 문화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니

‘문화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배움이라 생각한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보는만큼 느끼는 문화다양성



창녕제일고등학교 교사 구현

어떤 청년이 아버지와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청년은 중태에 빠졌다.
구급대가 급하게 인근 큰 병원으로 옮겼다.
수술을 위해 투입된 외과 의사가 중태에 빠진 청년을 보고 크게 부르짖었다.
“아니, 내 아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문제에 대해 쉽게 답이 나오는 사람은 굳이 이 연수를 듣지 않아도 되겠다.
다만 아직까지 ‘뭐지?’ 하고 답이 금방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문화다양성 연수’를 권하고 싶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연수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다.
연수 제목에 걸맞게 프로그램도 다양했고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내용이 많아 그랬던 것 같다.
내가 이 연수를 신청한 이유는
여러 학생들을 만나다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행동을 접할 경우가 많다.
나의 기준으로만 이러한 학생들을 대하려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잘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많이 괴롭기도 했다.
이 연수를 통해서 그러한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가하게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연수생들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좀 서먹했다.
하지만 그런 우려도 잠시,
첫 프로그램인 ‘질문으로 소개하기’를 통해 순식간에 분위기는 따뜻하게 바뀌었다.
특히 전남 강진에서 오신
두 여성분의 걸쭉한 사투리가 분위기를 더 돋우었다.

프로그램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다 보니 몇 번쨌지는 몰라도
일본 시민단체인 재특회(재일교포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의 시위를
소개하는 사진을 보게 되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재일동포들이 제대로 된 대접은 못 받을지라도
협한시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시위가 작년 후반기를 기점으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그러한 행위에 반대하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이
도리어 더 큰 힘으로 시위하기 때문이란단다.
확실히 일본은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거 같다.
우리나라도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정, 탈북자 가정,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이 있지 않은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일반인들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의 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함을 깨달았다.
(중간 생략)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고 했나?
우선 비판적인 안목으로 사실을 바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놓쳤던 일상의 소소함을 다르게 보는 경험을 하였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문화의 다양성’이란
다양한 외부자극을 경험함으로써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는 작업부터 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이었다.

마지막 소감 발표 시간에 연세가 있으신 여교감선생님께서
그동안 남편분이 수업을 길러서 별거(?)까지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고백이 있었다.
이 연수를 통해 각자는 자신이 가진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자유가 있으며, 그러한 삶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연수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면서 남편분의 행위를 수용하겠다고 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참여한 많은 분들도
소중한 깨달음을 안고 돌아갔으리라 믿으며 글을 마친다.

참, 첫머리의 퀴즈의 정답은 외과 의사는 그 청년의 어머니였다.

그대로 두는 것, 문화다양성을 깨닫다.



어린이책 작가 김용란

‘페미니스트로 일 년 살아보기’는 2017년 나의 글쓰기 주제.

성이나, 연령, 하는 일이나 사는 곳, 살았던 곳 따위로 사람을 저울질하지 않기.

있는 그대로, 받는 느낌 그대로 사람들과 관계 맺기.

그렇게 살아보다가 좋으면 계속 더 그렇게 살기로 하기.

작정한 한해살이가 이렇다 보니,

〈문화다양성 연수〉는 페미니스트로 일 년 살아보기에 딱 맞춘 프로그램이었으니…….

아주 오랜만에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행복해요.’라고 느끼게 된 연수였다.

문화에 대한 진중한 고민을 가진, 여기저기에 살고 살았던,

이 일 저 일을 하고 살고 살았던, 여자와 남자,

남자인데 여자, 여자인데 남자인 사람 등등을 만났다.

연수 제목은 문화다양성 ‘심화’ 교육.

제목이 이렇다보니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 이미 풍부한 사람들,

마흔 명 남짓이나 되는 사람들이

적극적 경청, 진지한 눈빛, 소란스럽지 않은 활동으로 빚어내는 분위기…….

분위기는 간단히 말해서 걱정했다. 이런 걸 ‘좋았다’라고 표현해야 하나?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의 태도들이 부딪히며 수군거리기도 하고

서로 못 참고 싸질도 하고 해야, 그걸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데, 너무 걱정했다.

앉아 있고, 가끔은 서서 움직이고, 한 번은 맨바닥에 벌렁 눕기도 하고,

과자와 커피를 가지러,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기에 알맞은 공간,

사람이 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공간의 밀도는

안정감을 느끼게 하니 걱정하다고 할밖에.

인상 깊은 프로그램이 한 둘이 아니었으나,

연수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주체의 감수성 만들기’

주제 시간 안에 들어가 있던, 밤 아홉 시 이후의 시간.

프로그램명 난에는 휴식 및 취침으로 적혀 있었으나,

나를 포함한 몇몇 참가자들은 ‘주체의 감수성 만들기’를 농밀하게 수행하고자 했다.

그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차별과 갈등에 대해서,

그로 인한 아픔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또한 자신은 얼마나 소수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까발리고자 했다.

낮 시간에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지나치게 경청의 모드로 치우친 자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인지,

모두들 침을 튀기며 ‘다양성’을 화두로

삶의 경험을, 인식율, 가치를 재구성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중간생략)

밤 아홉 시 이후,

내가 얻은 것은 “그대로 둘 줄 알아야 한다” 것이다.

서로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가족 이야기까지 흘러가게 되었다.

집밖의 공간으로 나가면 다양성에 대한 고민이 넓어지지만

집안의 공간으로 들어서면 그 고민이 좁혀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그것에 대해 묻고 생각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자리가 이어졌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자,

누군가 “왜 그대로 두지 않는가?” “그대로 두면 안 되는가?” 물었다.

그대로 두지 못하는, 두고 보지 못하는 나,

내 방식으로 가족을 다루고자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나에게 페미니스트로 살아보는 것은,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고정되고 어느 쪽으로 치우신 시선으로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자 하는 것.

내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일방적인 나를 발견하게 되다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페미니스트로 사는 것이 아주 피곤할 것 같다.

모순된 나를 쉬지 않고 마주해야 할 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걱정한데로 2017년은 페미니스트로 살아보기로 한다.

문화다양성 ‘심화’ 연수 덕분에 이게 녹록지 않을 걸 알게 되었다.

‘심화’ 연수가 입춘이 있는 이월에 있어서 다행이다.

아직 봄이 꿈지락대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 있게 되어서 말이다.

문화다양성은 권리이고 의무라는 것을 곱씹는 자리.



익산문화재단 숨리골 작은미술관 김은미

지난 2014년, (재)익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다가치 라운드테이블’에 민간단체 현장전문가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솔직히 당시는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을 몰랐던 때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였고,
그 교육은 남다른 울림을 주었다.
작은 마크에도 의미와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몰랐던 정체성의 사람들과 집단.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부끄러웠다.

나 또한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타자로 살아왔다고 여겼지만,
그런 나조차 다른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것은 아닐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살면서 문화다양성도 모르고
실천해온 다양한 활동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장을 받게 해 주었지만,
알고 보면 그 상의 가치는
내 무지(無知)의 깊이와 비례한 것임을 꼬집어 주었다.
그리고 2016년, 다시 한번
문화다양성 교육 및 워크숍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고
심화교육과정 안내를 받았다.
지인들에게 함께 갈 것을 권유했다.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만나고 나아가길 원했다.

내 안엔 다양한 삶이 존재한다.
그 중 행위예술가로 삶 속에는
‘미친’, ‘여자가’ 란 단어가 있었다.
행위예술은 ‘괴상망측’하다거나 ‘옷을 벗는다’라는
대표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모양이다.
항상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하지만
열 마디의 말보다 한번 마주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교육에서
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소수성을 인정하는 한 매개자를 만났다.
그로인해
나는 가발을 불편하게 쓰고 다니다가
시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안전지대에 들어온 느낌을 얻었다.
내 콤플렉스에 대한 상처를
치유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다.
그 한 사람의 매개자를 만나서
직접 마주보고
알아가며
열 마디의 말로 알 수 없는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그로인한 동질성이랄까?
나의 무의식 속 주홍글씨의 의미가 사라지는 듯 했다.

매번 교육을 통해 귀결되는 하나는
우린 희로애락을 동등하게 느끼는 인간이란 사실.
저마다의 문화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비인간적, 비인격적인 문화는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권리와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곱씹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주홍글씨를 지워야 한다는 것을.

이번 교육과정에서 아쉬운 것은
참여자 30여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짧았다는 점이다.
더 하고 싶고,
자주 하고 싶은 시간들이었다.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1. 설문 응답 현황

■ 회차 당 평균 29명씩 총 79명이 참여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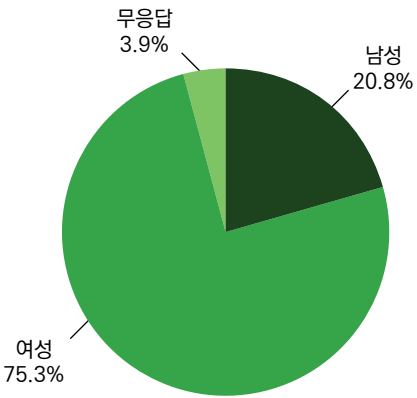
〈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설문 응답율

구분	참여자	설문응답자	설문 응답율
심화과정 “문화다양성을 마주하다”	1차	20명	20명 100.0%
	2차	30명	29명 96.7%
	3차	29명	28명 96.6%
	소계	79명	77명 97.5%

2. 기본 사항 및 참여 동기

■ 여성, 40대 및 문화재단관계자를 주축으로 모인 다양한 참여자들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에 참여한
설문 응답자들의 3/4 이상은 여성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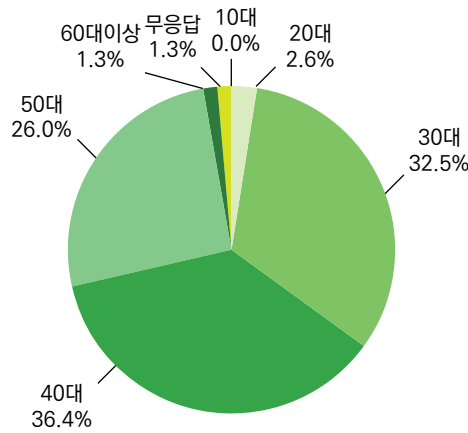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성별 구성 비율

3차례로 진행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은
모두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각 차수별 성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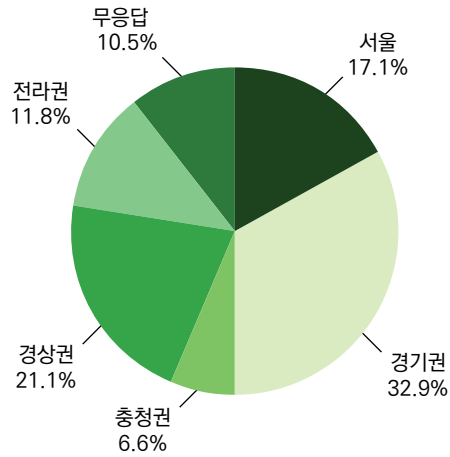
구분	남성	여성	무응답	합계
1차	25.0%	70.0%	5.0%	100.0%
2차	27.6%	69.0%	3.4%	100.0%
3차	10.7%	85.7%	3.6%	100.0%
합계	20.8%	75.3%	3.9%	100.0%

연령별로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연령별 구성 비율

서울에서 연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권 및 전라권에서도 본 과정에 함께하였습니다.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응답자의 활동 지역

활동별로는,
1차와 2차에서는 문화재단 관계자,
3차에서는 문화기획자가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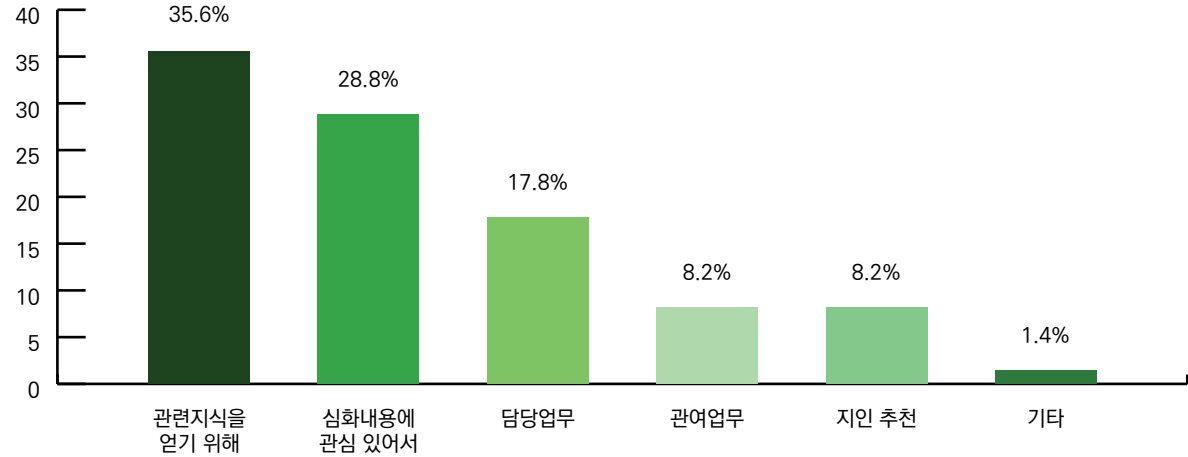
〈표〉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각 차수별 응답자의 활동

	문화재단 관계자	문화 기획자	공무원	다문화 관계자	교직원	시민단체 활동가	기타	무응답	합계
1차	25.0%	5.0%	5.0%	10.0%	5.0%	25.0%	10.0%	15.0%	100.0%
2차	25.9%	11.1%	0.0%	11.1%	22.2%	14.8%	14.8%	0.0%	100.0%
3차	11.1%	25.9%	7.4%	3.7%	18.5%	11.1%	22.2%	0.0%	100.0%
합계	20.3%	14.9%	4.1%	8.1%	16.2%	16.2%	16.2%	4.1%	100.0%

(무효 : 3명 제외)

■ 관련 지식과 심화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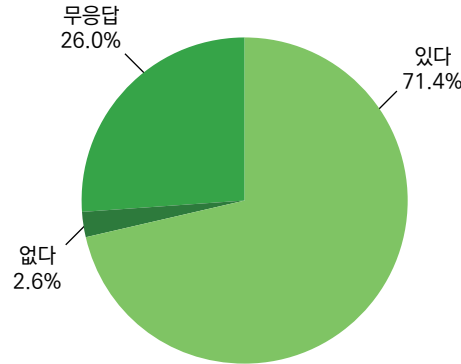
많은 응답자들이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해,
심화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등의 이유로
본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효 : 4명 제외)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참여 동기

또한,
본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이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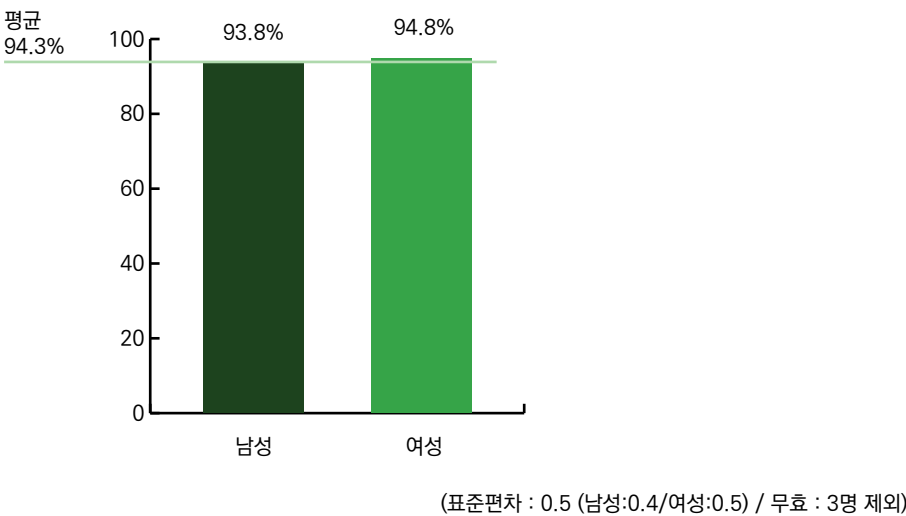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와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기본과정)과 차이

3.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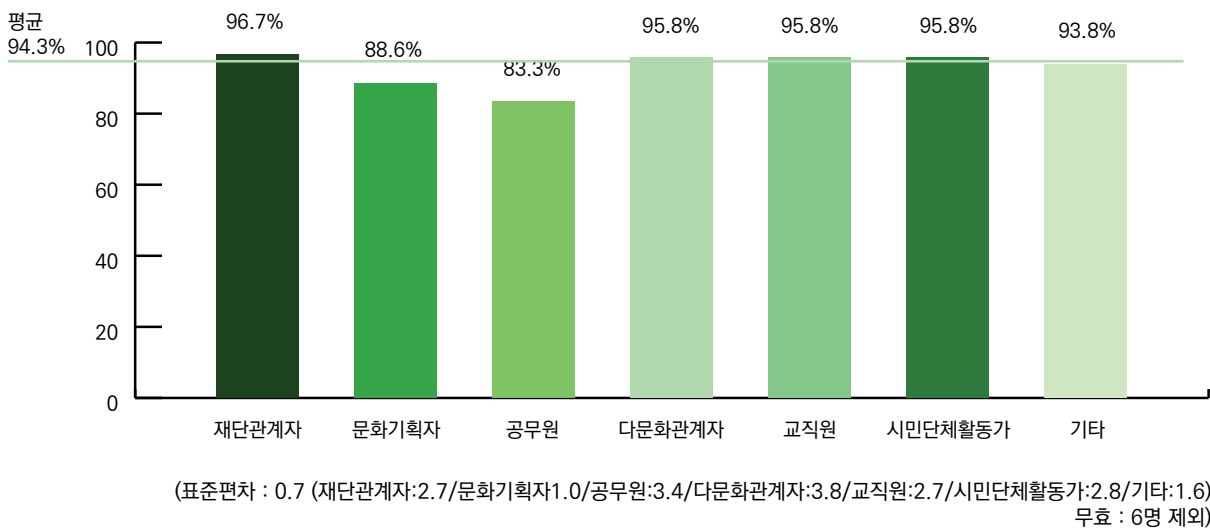
■ 높은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

설문 응답자들은 자신이 참여한 2016년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에
평균 5점 만점에 4.8점, 100점 만점에 94.3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94.8점으로, 남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성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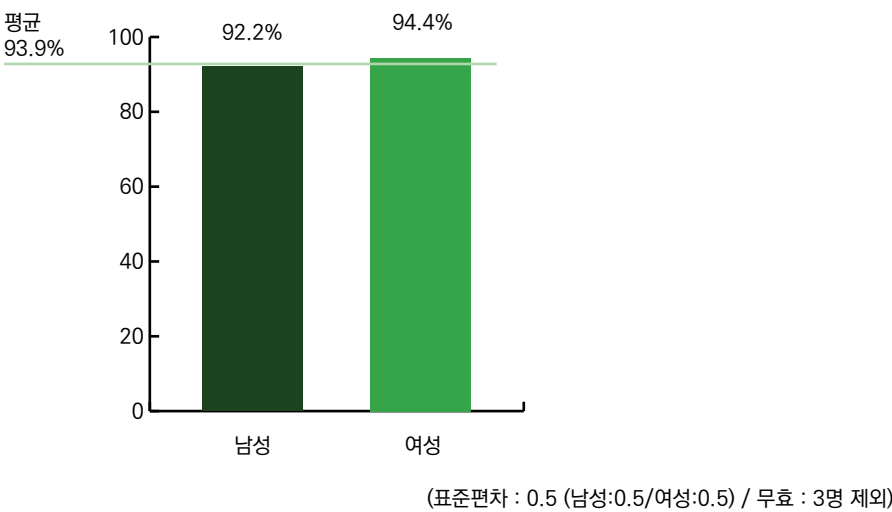
활동별로는 재단 관계자가 9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관계자, 교직원 및 시민단체활동가가 각각 95.8점 등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활동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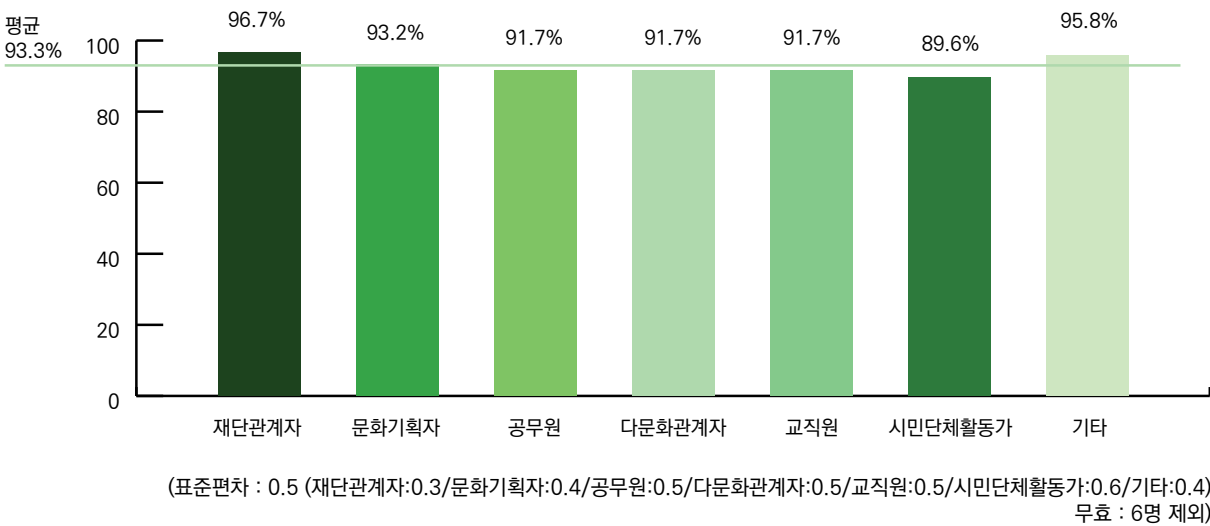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의 재참여 의사는,
평균 5점 만점에 4.7점, 100점 만점에 93.9점으로
높은 재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94.4점으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성별 재참여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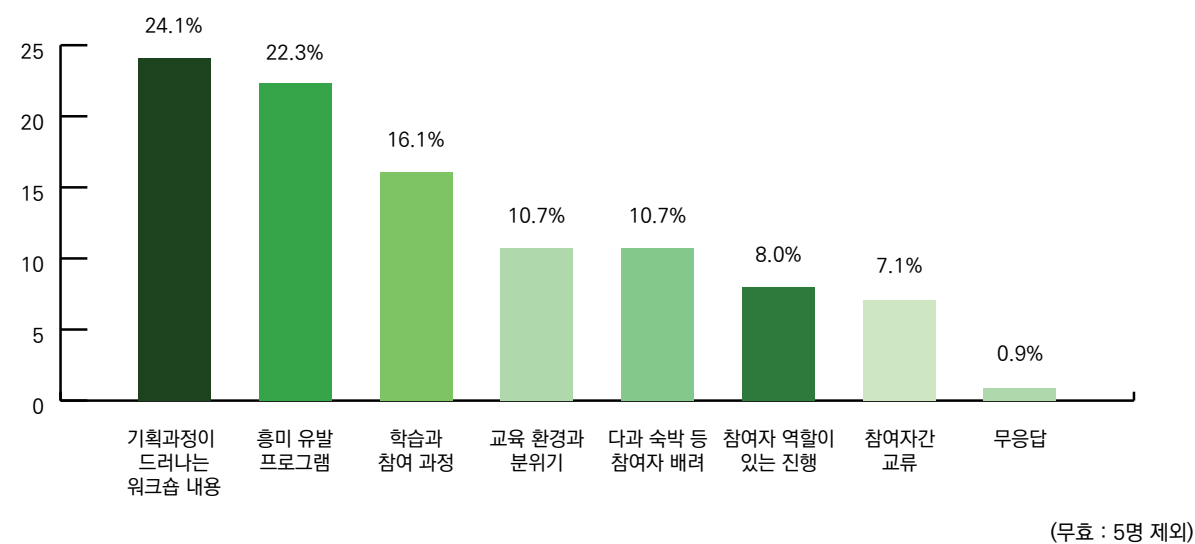
활동별로는 문화재단관계자가 96.7점으로 가장 높은 재참여 의사를 보였으며,
문화기획자가 93.2점, 공무원, 다문화관계자 및 교직원이 91.7점 등
높은 재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업종별 재참여 의사

■ 기획과정이 드러나는 워크숍 내용에 만족

특히, 응답자들은
기획과정이 드러나는 워크숍 내용에 가장 많이 만족했으며,
흥미 유발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과 분위기 등의 순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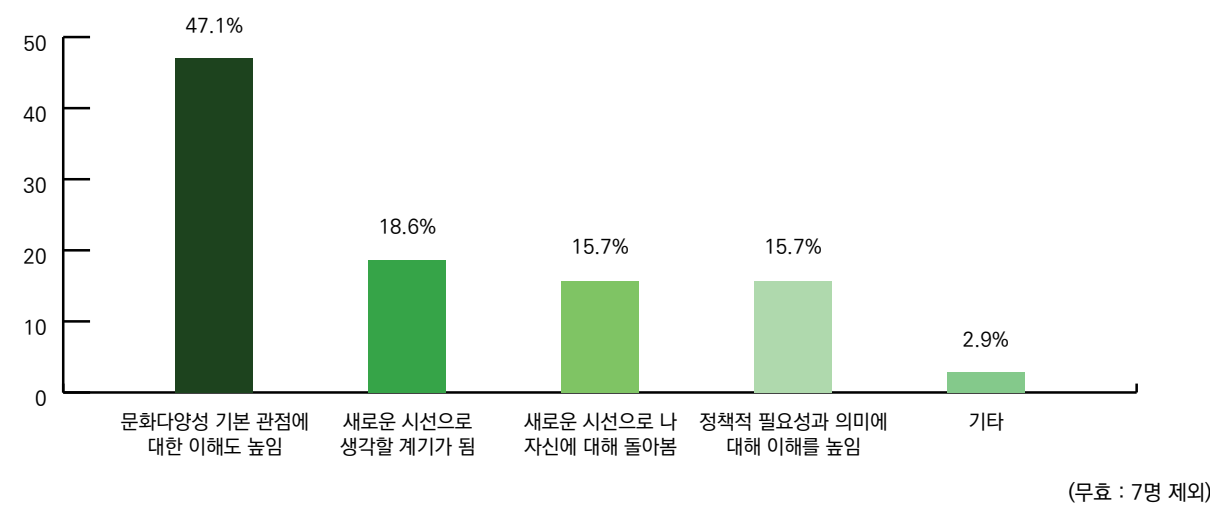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만족 지점

4. 본 연수를 통해...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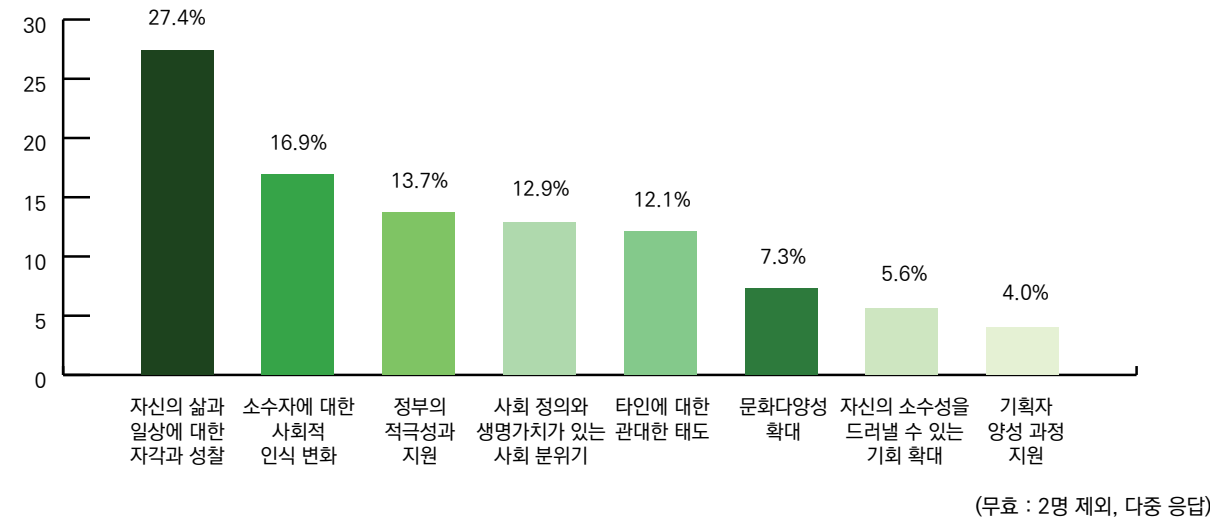
본 과정을 통해 많은 응답자들은 문화다양성의 관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문화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시선으로 생각할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연수를 통해 얻은 점

■ 문화다양성을 위해...

응답자들은 문화다양성에 있어 자신의 삶과 일상에 대한 자각과 성찰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정부 정책의 적극성과 지원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 문화다양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

■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은...

본 과정에서 응답자들은,
1박 2일 동안 세심한 배려 속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기획자와 스텝분들,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현장 분위기
 - 프로그램 구성도 좋고 기획자의 깊은 배려가 느껴지는 연수였습니다.
 -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정에 스텝분들의 '사고, 가치, 노력, 마음'이 보였습니다.
-

반면,
프로그램의 시간 부족,
좀 더 구체적 사례 제시 등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교육 내용과 사례발표, PPT 등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움이 있음
 - 강의, 체험 다 좋았으나, 문화다양성이 공존하는 사례 현장 탐방 및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 시간에 비해 연수 내용이 조금 많았다는 생각입니다. 한 두시간 이상 깊이 있는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 강의 후 질의 혹은 그룹 내 토론시간이 조금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박2일이 너무 짧네요.
-

본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심화과정)를 통해,
주체적인 삶,
자기 내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점이 더 풍성해짐을 느꼈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문화 다양성이 결국 내 삶의 다양성을 자각하고 깨어있으며 실천하는 과정임을 배우고 갑니다.
 -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으나, 매우 알차고 심도 있는 내용에 감탄했습니다.
 - 무작정 문화다양성을 위한 인식 교육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느끼고 깨닫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흥미롭고 지루하지 않았으며, 주체 자각 등 인문적 가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스스로를 돌아 볼 수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잊지 않을 거예요.
-

파트 4

시선과 생각의
표현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기획자 리뷰 : 기획자의 상상

넉 달간의 성장기

김성진 (기획자/ 프로그램 진행 담당)

넉 달전, 나는 문화디자인 자리의 최혜자 대표님으로부터
문화다양성 연수의 기획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 받았다.

처음에는 ‘문화다양성 연수’라는 컨셉이 생소하고,
과연 연수를 통해 ‘문화다양성’이라는 엄청나게 폭 넓은 주제에 대해
내가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정체성 중 하나인 성소수자로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소수자적 관점과 감수성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최혜자 대표님이 기획 방향을 제안한 ‘문화다양성 연수’는
일반적인 강의식 연수와는 달랐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연수는, 문화다양성이라는 주제를
문화기획적 관점으로 풀어내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획에 가까웠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난 반가웠고,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열의를 끌어내게 하였다.

다양한 기획자들이 모여
두 달여간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관점과 아이디어를 교환하였고,
문화다양성을 둘러싼 이슈에 대한 뜨거운 논의도 진행하였다.
기획단은 우리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어떠한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전달해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해 가며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수정해 나갔다.

나는 이 준비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새로운 시선과 관점들, 반짝이는 아이디어들.

이제와 되돌아보면, 이번 ‘문화다양성 연수’의 가장 수혜자들은
어쩌면 이 연수를 준비한 우리들 기획자 그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지난한 고민의 과정을 거쳐 ‘문화다양성 연수’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개인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두 축으로 설계되었다.
형식적으로는 강의와 활동프로그램, 토론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도록 구성하였다.
항상 똑같은 전문가/기획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기획자와 프로그램을 조금씩 변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도입해 보았는데,
그것은 타자의 시선으로 연수 과정을 도큐메이션 하는 것이었다.

그림 작가가 연수에 함께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과정과 이야기를 작가의 시선으로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이었다.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과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신선한 시도가 된 것 같다.

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연수 8회 중 5회,
서울에서 진행된 심화과정에서는 3회중 2회를 프로그램 사회자로 참여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공공기관 관계자에서부터
교사, 문화예술단체, 시민활동가, 작가에 이르기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다.
서로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현실적 상황이나 고민의 결은 조금씩 달랐지만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점을 올바르게 세우고,
자신의 장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으려는 고민은 누구나에게 공통된 사항이었다.
연수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획단에서 설계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고,
때론 이면의 세세한 의도까지도 날카롭게 읽어내 주셨다.

토론 시간에는 현장의 문제들, 개인적인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어
서로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
물론, 무언가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기획단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고민해 가며 그 다음 시간을 준비해가며 연수를 마쳤다.

‘문화다양성’이라는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다.
‘문화다양성’을 수용한다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게 폭넓은 경험과
깊은 사유에서 비롯된 열린 삶의 태도를 요구한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취득과 학습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사회의 문화다양성 포용력, 감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오랜 노력과 시간, 공동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일일 것이다.

한두 번의 연수로 문화다양성 지수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돌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다양성 연수가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은,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변화의 씨앗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이다.
내 안의 변화의 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몇 시간, 1박 2일이라도 그리 짧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이번 연수의 기획을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한 뼉 성장할 수 있었다.
‘문화다양성 연수’에 함께 한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작은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들을 발견했다면 정말 좋겠다.

변화의 작은 씨앗들이 각자의 일터, 삶터에서
다시 하나의 생명처럼 자기 조직화되어 새로운 싹으로 돋게 되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또다시 이러한 싹들이 피고 만나 서로를 성장시키게 되기를...

그리고 나도 그 싹들 중 하나가 될 수 있기를...

타자와 함께 사는 연습, 문화다양성

유다원 (프로그램 기획/진행)

모임은 저마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문화다양성 기획자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만났고
주로 수다를 떠는 형태로 모임이 진행되었다.
소비적인 수다라기 보다는
문화다양성에 다각적인 측면과 아는 것 사이와 사이,
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채우는 생산적인 수다의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다양성 연수에서의 각자 역할을 정했고,
혹은 정해졌고 나에게도 역할이 왔다.

“사람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열어줄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기!”

평범하지만 조금씩 다른
저마다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
일상에서 우리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것을
바라보는 [동네 골목 디자인]과 [등 뒤의 당신],
섬세하게 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쳤을 것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보는
[우리가 RE: DESIGNER]까지 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가끔 깜짝 놀랄 만큼
진솔한 마음을 내놓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였다.
어느 때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없는 시각을 보이기도,
어느 날은 생각했던 가이드라인을
전혀 벗어난 사고를 하는 참여자를 만나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늘 처음은 낯설고 어색하다.
적어도 나에게
그 자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리이든,
기획자들의 모임이든 늘 그러하다.

그러나 그 낯설고 어색한 시간은 자연스럽게 지나갔다.
연수를 준비하며 기획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만났고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드백과 시연까지 진행하면서
성향도, 하는 일도, 생각도 각자 다른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2월 [심화과정]을 진행할 때 즈음에는 서로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있었다.

문화다양성도 그런 것이 아닐까.
삶의 환경과 조건, 활동이 다른 낯선 서로가 만나 가까워지고
이해하고 거리를 줄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다만 그 과정에
서로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배우고,
섬세한 눈으로 마음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문화다양성의 시작이 아닐까 싶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라는 이름으로
수 시간 만나고 배웠던 것 같다.

이전과는 조금 더 섬세하고
한 뼉 넓어진
시선을 가지고
다시 타인을 마주하기 위해...

2016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작가 아카이빙 : 타자의 시선



그림 | 김지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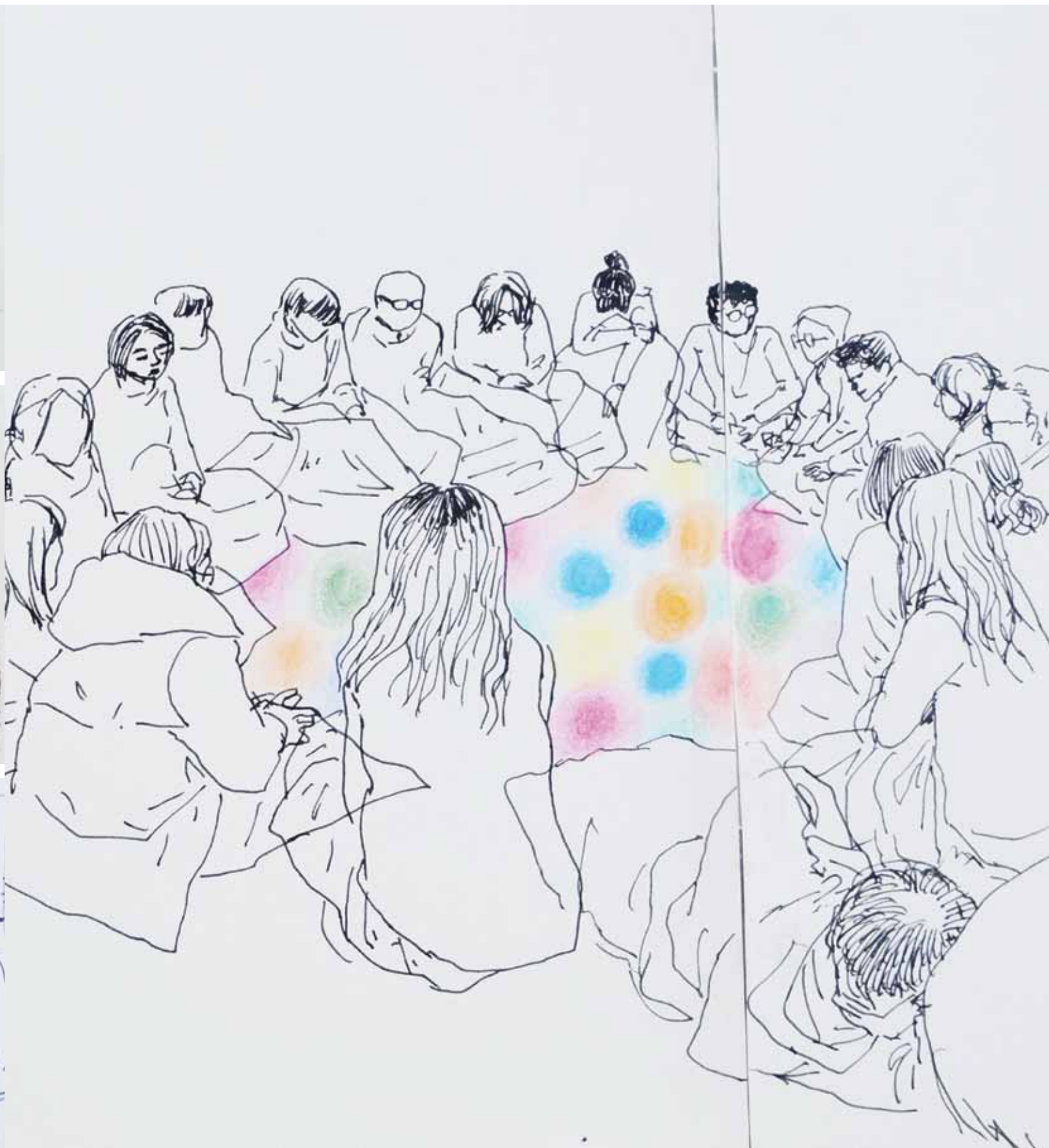


그림 | 김지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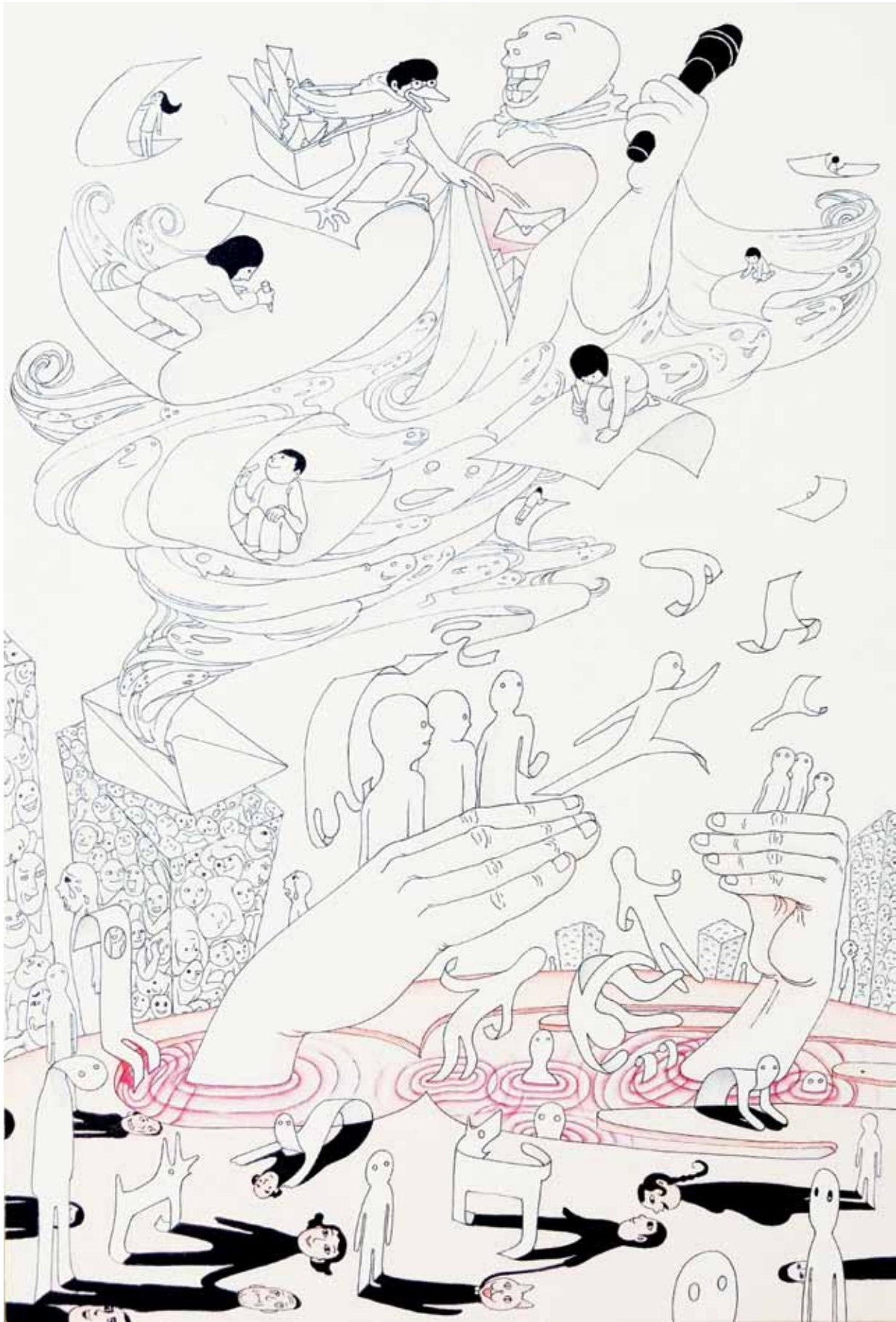


그림 | 최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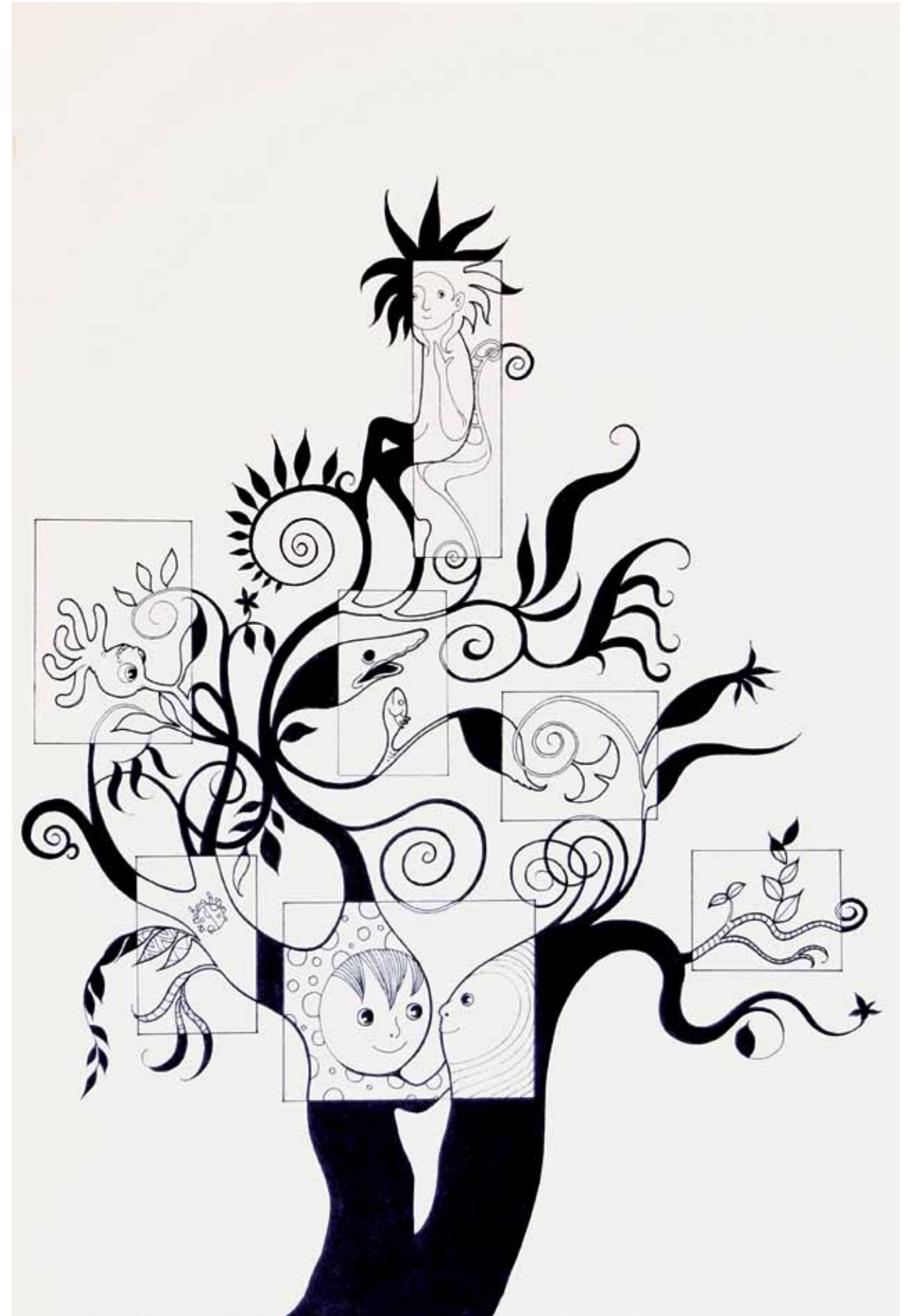


그림 | 최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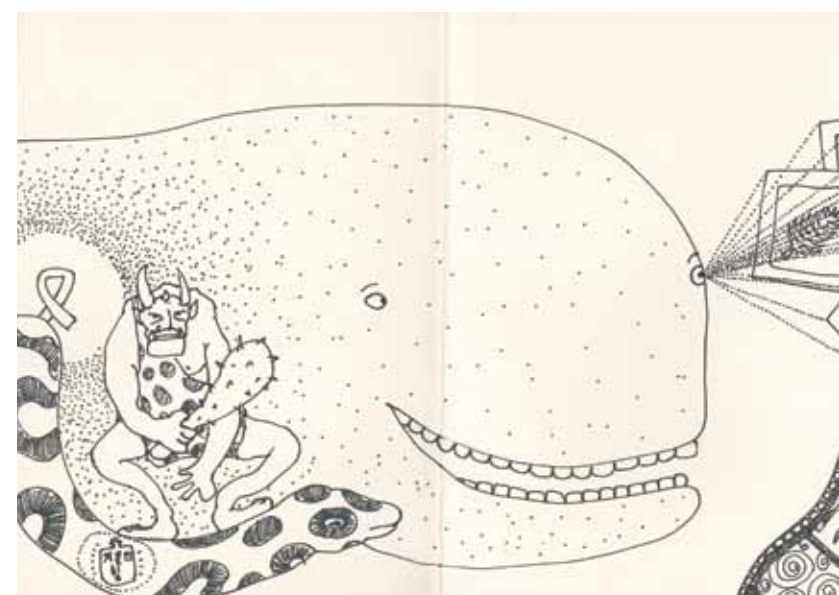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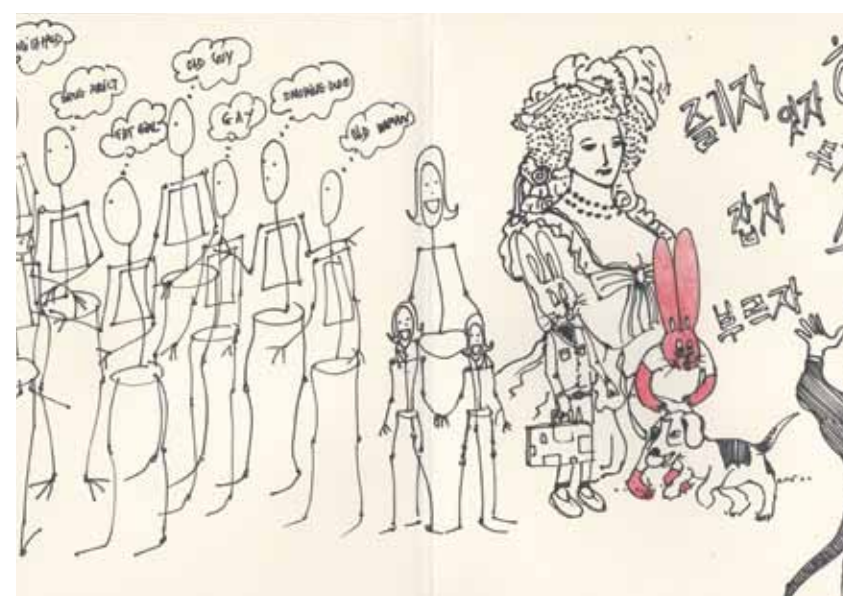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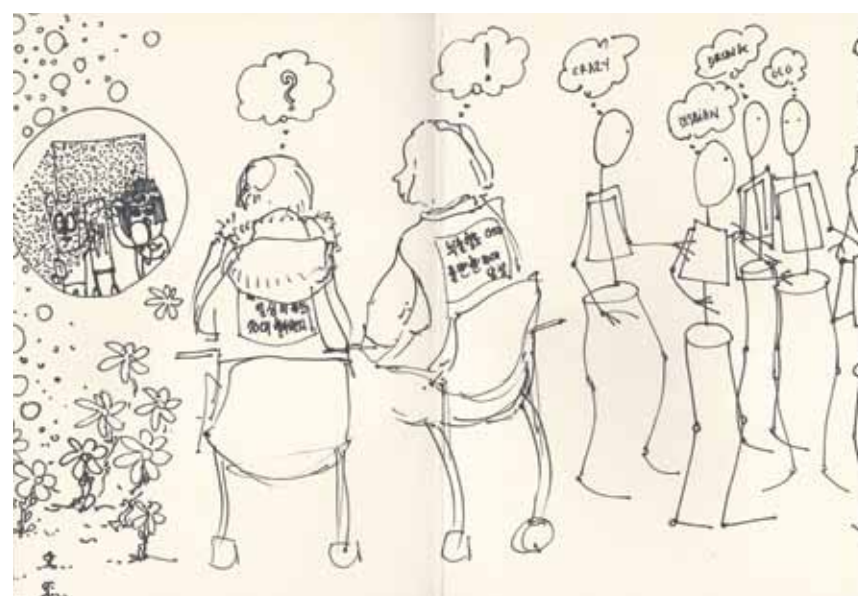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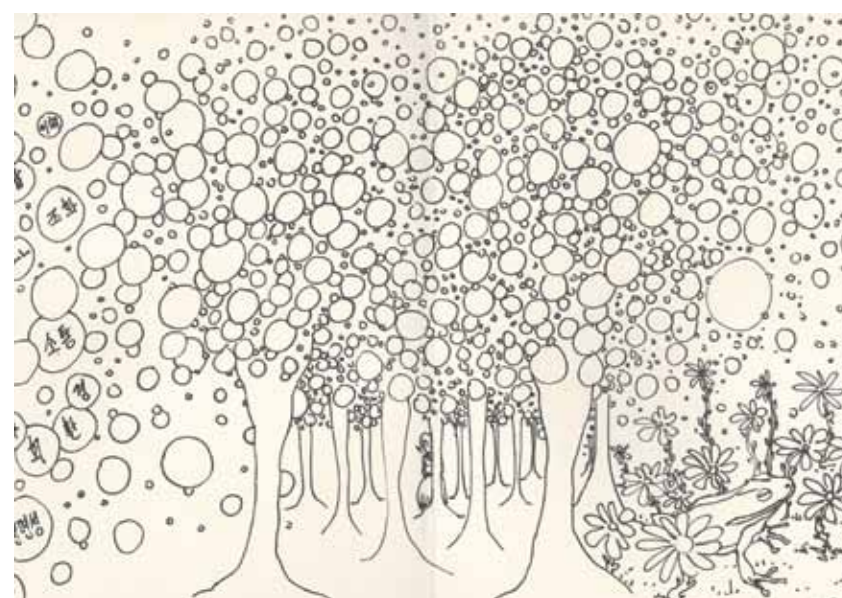




그림 | 브뤼노 파이엥

